

재외동포용 교재  
고 급(영어권)

# 한 국 어 I

## (상)

대 한 민 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국 제 교 육 진 흥 원

## 차 례

1. 놀란 토끼와 사자 .....	5
2. 소개하는 방법 .....	14
3. 아름다움에 대하여 .....	24
4. 한국어 사전 찾기 .....	32
5. 두 편의 시 .....	40
6. 제주도 여행 .....	49
7. 한국의 속담 .....	59
8. 나의 일기 .....	71
9. 문장의 끝맺음과 높임 .....	77
10. 은정이네 저녁 시간 .....	90
11. 실용문 .....	102
12. 성공과 실패 .....	115
13. 좋은 글을 쓰려면 .....	122
14. 약손 .....	132
15. 말의 영향력 .....	141
16. 이수진에게 .....	150
17. 한국어의 음운 변동 .....	158
○ 알아 둘 말 .....	167
○ 듣기 훈련을 위한 자료 .....	181

## 제 1 과 놀란 토끼와 사자

### 1

옛날 어느 강 기슭에 우거진 야자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 속에는 토끼네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들이 잠들어 있을 때, 잘 익은 야자 열매 하나가 강물로 떨어지면서 ‘퐁덩!’ 하고 큰 소리를 냈다. 겁이 많은 토끼들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막 달아나기 시작했다.

### 2

옆집에 사는 여우가 물었다.

“왜 그렇게 도망치는 거냐?”

“큰일났어, 큰 짐승들이 쳐들어오고 있나 봐.”

토끼들은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응? 큰 짐승?”

그래서 여우도 함께 뛰었다.

“왜 그러니?”

늑대가 자다 말고 뛰어 나와서 물었다. 그러나 토끼와 여우가 대답도 없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늑대도 허둥지둥 그들의 뒤를 따라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숲 속에 사는 사슴, 노루, 곰, 기린, 코끼리,  
그리고 호랑이까지도 덩달아 뛰어 달아났다.

“너희들, 어딜 그렇게 뛰어가느냐?”  
사자가 뛰어가는 짐승들을 보고 물었다.



“글쎄, 코끼리가 뛰어가기에.”  
하고 호랑이가 말했다.

“난, 기린이 뛰어가기에.”

“난, 곰이 뛰어가기에.”

“난, 노루가 뛰어가기에.”

“난, 사슴이 뛰어가기에.”

“난, 늑대가 뛰어가기에.”

“난, 여우가 뛰어가기에.”

“난, 토끼가 뛰어가기에.”

모두들 토끼를 바라보았다.

### 3

“우리가 자고 있는데, 강물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토끼가 말했다. 바로 그 때, 강물에서 ‘퐁덩!’ 하는 소리가 났다.

“어이구, 저 소리예요!”

토끼가 벌벌 떨면서 말했다. 그래서 모두 강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 때 마침 또 하나의 야자 열매가 ‘퐁덩!’ 하고 큰 소리를 내며 강물에 떨어졌다. 그래서 모두 배를 움켜 쥐고 웃었다.

사자도 히죽히죽 웃으며 짐승들에게 말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도망친 토끼는 경솔하고, 남이 가니까 덩달아 뛰어간 너희들은 짓대가 없구나!”

### 4

이 동화는 신중한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유한 이야기이다. 이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동물들의  
 분별 없는 행동과 같은 현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 사람이 땅을 사서 재미를 봤다 하면 너도 나도 땅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땅 값이 터무니없이 뛴다.

누가 의과가 좋다 하면 너도 나도 의과 대학으로 몰려가  
 고, 컴퓨터학과가 좋다 하면 학생의 적성이나 취미는 아랑  
 곳없이 컴퓨터학과로 일제히 몰린다.

누가 여행을 떠나면 너도 나도 여행을 떠나고, 누가 자동  
 차를 사면 필요성이나 주머니 사정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도 앗고 무턱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본다.

이 ‘놀란 토끼와 사자’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게 뜻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 ❶❷❸❹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 (1) 토끼 가족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 (2) 토끼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3) 토끼들은 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까?
- (4) 여우는 왜 토끼를 따라 뛰었습니까?
- (5) 뛰어가는 짐승들을 보고 사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 (6) 호랑이는 사자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 (7) 곰, 노루, 사슴, 늑대, 여우가 사자의 물음에 답한 말을 아래  
 빈 칸에 써 보세요.
  - 곰 : \_\_\_\_\_
  - 노루 : \_\_\_\_\_
  - 사슴 : \_\_\_\_\_
  - 늑대 : \_\_\_\_\_
  - 여우 : \_\_\_\_\_
- (8) 토끼가 벌벌 떴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동물들이 모두 배를 쥐고 웃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 (10) 사자가 한 말 “잘 알아보지도 앗고~줏대가 없구나!”는 어떤

뜻입니까?

(11)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 2. 문답 연습

(1) 일 주일은 몇 날이지요?

- 일 주일은 칠 일이에요.

(2) 요일을 차례대로 말해 보세요.

-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3)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 스물네 시간이에요.

(4) 학생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 \_\_\_\_\_ 살이에요.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철수 : 일 년은 몇 달이에요?

순이 : 열두 달이에요.

철수 : 일 년은 몇 계절로 나뉘나요?

순이 : 일 년은 사계절로 나뉘어요.

철수 : 사계절을 차례로 말해 보세요.

순이 :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철수 : 각 계절의 특징은 무엇이지요?

순이 :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추워요.

## 2. 대치 연습

(1)	일 년	은 몇	달	이에요?
	한 달		날	
	일 주일		날	
	한 시간		분	

## Ⅲ. 학습 문제

1. 다음 단어(낱말)를 <보기>와 같이 소리나는 대로 써 보세요.

<보기> 싫다 → [실타]

(1) 이렇게 : \_\_\_\_\_ (6) 옛날 : \_\_\_\_\_

(2) 그렇게 : \_\_\_\_\_ (7) 기슭에 : \_\_\_\_\_

(3) 앓고 : \_\_\_\_\_ (8) 늑대 : \_\_\_\_\_

(4) 좋다 : \_\_\_\_\_ (9) 없는 : \_\_\_\_\_

(5) 놓고 : \_\_\_\_\_ (10) 있었다 : \_\_\_\_\_

2.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보기〉 기린이 뛰어간다. → 뛰어가기에

- (1) 친구가 말하다. → \_\_\_\_\_
- (2) 동생이 오다. → \_\_\_\_\_
- (3) 바람이 불다. → \_\_\_\_\_
- (4) 아이가 울다. → \_\_\_\_\_
- (5) 이것을 주다. → \_\_\_\_\_

3. 다음 동물들의 특징을 간단히 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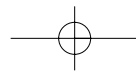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1) 토끼 : \_\_\_\_\_
- (2) 여우 : \_\_\_\_\_
- (3) 늑대 : \_\_\_\_\_
- (4) 기린 : \_\_\_\_\_
- (5) 곰 : \_\_\_\_\_
- (6) 노루 : \_\_\_\_\_
- (7) 사슴 : \_\_\_\_\_
- (8) 호랑이 : \_\_\_\_\_
- (9) 사자 : \_\_\_\_\_
- (10) 코끼리 : \_\_\_\_\_

4. 다음 문장의 □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 (1) 열매 하나가 강물로 떨어지면서 ‘□□□□’ 하고 큰 소리를 냈다.

- (2) 토끼들은 □□□□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 (3) 큰 짐승들이 □□□□ 오고 있나 봐.
- (4) 토끼들은 □□□□ 말했다.
- (5) 호랑이까지도 □□□□ 뛰어 달아났다.
- (6) 너희들, 어딜 □□□□ 가느냐?
- (7) 토끼가 □□□□ 떨면서 말했다.
- (8) 그래서 모두 □□□□를 움켜쥐고 웃었다.
- (9) 너희들은 모두 □□□□ 없는 것들이다.
- (10) 땅 값이 □□□□ 뚝뚝 떨어진다.

〈보기〉 1. 그렇게 2. 벌벌 3. 배 4. 쫓대가  
5. 터무니없이 6. 덩달아 7. 풍덩 8. 쳐들어  
9. 깜짝 10. 헐떡거리면서



## 제 2 과 소개하는 방법

### 1

#### 소개하는 순서와 소개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할 경우가 많다. 또한, 친구나 가족을 소개해야 할 경우도 종종 있다. 친구나 가족을 소개할 때에는 먼저, 소개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관계에 따라 소개하는 순서와 소개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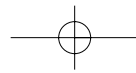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웃어른과 아랫사람이 있을 때에는 웃어른께 아랫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에게 웃어른을 소개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소개할 때에는 간단하고 정중하게 하되,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좋은 점을 덧붙이는 것도 좋다.

### 2

#### 친구를 어머니께 소개하기

진 희 : 어머니, 제 친구 셋별이에요.  
지난 주에 우리 학교로 전학왔어요.  
무용을 잘 해요.



셋별아,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려.  
요리 솜씨가 으뜸이셔.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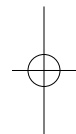
#### 친구를 아버지께 소개하기

성 철 : 아버지, 제 친구 박진수입니다.  
진 수 :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아버지 : 어서 오너라. 성철이하고 같은 반이냐?  
성 철 : 아닙니다. 6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는데, 지난 봄에 다른 학교로 전학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놀러 왔습니다. 저는 태권도<sup>\*</sup>를 잘 합니다.  
아버지 : 그래서 그런지 체격이 참 좋구나.  
성 철 :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탁소를 경영하시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를 많이 쓰셔.  
진 수 : 뽕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버지 : 그래, 나도 반갑다. 그럼 놀다 가거라.

### 4

#### 선생님을 할아버지께 소개하기

영 호 : 할아버지, 한글 학교의 김철수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환갑이 지나셨는데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5

## 학교 소개하기

자기 학교를 소개할 때에는 먼저 자기 학교의 어떤 점을 소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대체로 학교의 역사, 위치, 규모, 특색, 학생들의 생활, 학교에 다니면서 느꼈던 점 등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김한솔입니다.

우리 학교는 약 1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은 오십 명 정도 되며, 선생님 세 분께서 저희들에게 한글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멀리 백악관이 바라다 보이는 우리 학교는 크지는 않지만, 담쟁이덩굴이 본관 건물을 뒤덮고 있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한국 학교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 (1) 친구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2) (1)번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웃어른과 아랫사람을 소개할 때의 순서를 말해 보세요.
- (4) 자기 학교를 동네 친구에게 소개해 보세요.
- (5) 자기 동생을 선생님께 소개해 보세요.
- (6)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친구에게 소개해 보세요.

2. 다음 단어를 바르게 따라 읽어 보세요.

- 정확히 [정화기]    • 덧붙이는 [덧뿌치는]    • 좋다 [조타]
- 착해요 [차개요]    • 없어 [업씨]    • 덕분에 [덕뿌네]
- 일요일 [이료일]    • 않지만 [안치만 ]    • 뒤덥고 [뒤덥꼬]

• ㄱ+ㅎ → ㅋ : 특히 → [트키] (especially)

• ㄷ+ㅎ → ㅌ : 닫힌 → [다틴] → [다친] (closed)

### 3. 어법

- (1) • ~(이)기 때문이다 : (It's) because (of) ~

[A causal ending/앞말에 대한 원인을 나타냄.]

- 그 관계에 따라 소개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우리는 한글을 배운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운다.

- (2) • ~되 : ① ~더라도(even if), ② ~지만(b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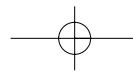
[Conjunctive verb ending/접속형 어미로, 뒷말의 내용이 앞말의 내용과 대립(confront)될 때 쓰임.]

- 술을 마시되, 조금만 마시세요./마시더라도
- 나는 비록 가난하되, 절망하지 않는다./가난하지만

- (3) • 비록 ~지만/ ~(아/어)도 : (even) though

[Adverb/어떤 사실을 인정(admit)하면서도, 그것과 대립적인 다른 사실을 들어 강조(emphasis)할 때 쓰임.]

- 우리 학교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멋있습니다.
- 철수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은 어른스럽다.
- 한국은 비록 땅은 작아도, 자연은 아름답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영수는 한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 인호를 만났다.

영수 :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영수야.

인호 : 난 인호야. 여길 나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같은 한국인을 만나고 보니, 나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잘 부탁해.

### 2. 대치 연습

(1) 나는 지금 한국말을 배울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다.

↑	↑	↑
그 여자를	만날까	고민하는
여행을	갈까	생각하는
태권도를	배울까	망설이는
비밀을	말할까	망설이는

(2) 비밀을 털어 놓고 보니, 마음이 편하다.

↑	↑	↑
너를	만나고	매우 기쁘구나!
화를	내고	후회가 된다.
친구와	헤어지고	마음이 허전하다.

## Ⅲ. 연습 문제

1.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기 때문에’, ‘—아/어서’를 넣어서 써 보세요.

<보기> 그는 약을 먹었다. 머리가 아팠다.  
→ 그는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약을 먹었다.  
→ 그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다.

(1) 한국 친구에게 편지를 못 쓴다. 한글을 모른다.

→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 한글을 몰라서

(2) 진수와 자주 못 만난다. 진수가 전학을 갔다.

→ 진수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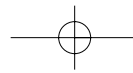
(3) 나는 기분이 좋다. 우리 학교 축구 팀이 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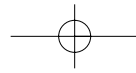
→

→

2. 주어진 어구나 문장에 ‘—되’를 넣어 <보기>와 같이 완성해 보세요.

<보기> 친구를 사귀다. 좋은 친구  
→ 친구를 사귀되, 좋은 친구와 사귀어라.





(1) 외출을 하다. 10시까지 돌아오다.

→ \_\_\_\_\_

(2) 친구와 놀다. 집 안에서

→ \_\_\_\_\_

(3) 그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다. 정신적으로 부유하다.

→ \_\_\_\_\_

3. 다음 ( )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A : 한국말을 쓸 기회가 자주 있어요?

• (종종) → B : 아니요. 하지만,

A : 한국은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 (아마) → B : \_\_\_\_\_

A : 한국말을 참 잘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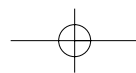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 (덕분에) → B : \_\_\_\_\_

## ※ 보충 학습 자료

### ■ 태권도(the Korean art of self-defense)

2,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발달된 전통 무술로서, 이제는 전세계에 보급된 국제 공인 스포츠이다. 많은 현대 스포츠와는 달리 무도 정신과 스포츠 정신이 함께 결합된 무도 스포츠로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함께 닦는 운동이다. 태권도는 전신 운동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맨손과 맨발로 인체의 관절을 무기화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도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지난 '94년 10월 13일 세계 올림픽 위원회에 의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 제 3 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 Ⅰ 대 화

며칠 전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제과점에 들른 일이 있었다. 우리 이웃 자리에는 고등 학생으로 보이는 대여섯 명의 소년·소녀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깔깔 웃으며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 까닭은, 고등 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소녀들의 대화치고는 너무 거칠었기 때문이다. 다른 손님들도 꽤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주위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떠들어 댔다. 그리고 말씨들이 어찌나 거친지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말씨는 곧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또, 그 말씨에 따라서 인품을 닦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주고받는 말은 우리들의 인격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곱고 아름다운 소년·소녀들의 입에서 험악한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다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스쳐오는 바람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말로 대화를 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 2 얼 굴

얼굴은 가지각색이다. 둥근 얼굴, 긴 얼굴, 꺼먼 얼굴, 하얀 얼굴, 누런 얼굴, 다 각각 다르다. 얼굴은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눈, 코, 입 어느 한 부분도 똑같지가 않다.

이렇게 똑같지 않은 얼굴 중에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잘 생긴 얼굴, 못 생긴 얼굴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생김새와는 관계 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얼굴과 그렇지 못한 얼굴을 만나게도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첫인상은 매우 우락부락하지만 자주 만날수록 그 우락부락한 인상은 깨끗이 사라지





고 차차 좋아지는 얼굴이 있고, 첫눈에는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보아 감에 따라 차차 싫어지는 얼굴도 있다.

지금도 내 얼굴의 생김생김이나 그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일찍이 나는 얼굴이 예쁘지 못한 것을 비관까지 한 일이 있었다. 여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된다.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상급생 언니가, 나를 통해서 알게 된 나의 친구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 나는 한꺼번에 두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언니처럼 믿고 의지해 오던 상급생 언니, 그리고 한 시도 떨어질 수 없는 절친한 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섭섭한 마음은 형언할 수조차 없었다. 그 때, 나는 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예쁘기 때문에 내가 패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 외국에 계시던 아버지께, 왜 나를 보기 싫게 낳아 주셨느냐는, 원망하는 내용의

글월을 보냈었다. 그 때 아버지께서는 “인간은 본시 예뻐야 잘사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훌륭한 삶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뜻의 글월을 보내 주셨다.

그러나 얼굴 외양이 예쁘고 미운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던 그 때의 나에게 아버지의 그런 글월이 위로가 될 수는 없었다. 마음씨란 수양으로써 곱게 다듬을 수 있지만, 미운 얼굴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이 예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 혹, 친구들 중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못났소?”

하고 놀려 대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태연자약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

관상가들조차 용모보다는 ‘심상(心相)’이 제일이라고 한다. 얼굴의 생김새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의 곱고 나쁨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리라.

〈조경희〉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 ① ②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우리 이웃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

(2) 나는 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까?

---

(3) 말씨는 무엇을 드러내기 마련입니까?

---

(4) 무엇이 우리들의 인격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합니까?

---

(5) ② ‘얼굴’에 나오는 아버지는 딸에게 무엇이라고 답장을 썼습니까?

---

### 2. 어법

(1) • 뿐만 아니라 : not only ~ but also

- 농구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야구도 잘 한다.
-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춤도 춘다.

- 비가 올 뿐만 아니라 바람도 세게 분다.

(2) • ~수록 : more and more

- 공부는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 오래 살수록 이 도시가 좋아진다.
- 먹을수록 그 맛을 즐기게 된다.
- 만날수록 새로운 느낌이 든다.

(3) • 통해서 : through

-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새 정보를 얻었어요.
- 알래스카를 통해서 서울로 가요.

### II.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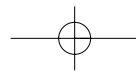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어머니 : 영미야,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영 미 : 엄마, 난 왜 얼굴이 못생겼어요?

어머니 : 눈, 코, 입만 예쁘다고 해서 미인은 아니란다.

영 미 :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죠?

어머니 : 마음이 아름다워야 진짜 미인이지.



## 2. 대치 연습

(1) 

기분이
얼굴이
색깔이
생김새가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2) 난 왜 

얼굴이
코가
눈이
다리가

 못생겼어요?

(3) 

얼굴	만	예쁘다고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해서 

미인은
훌륭한 것은
뛰어난 것은

 아니란다.

## Ⅲ. 학습 문제

### 1. 맞는 답을 찾아 보세요.

(1) 본문 ㉠ ‘대화’의 중심이 되는 생각은?

- ① 소년·소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 ② 곱고 아름다운 말을 쓰자.

(2) 말을 곱게 쓰면?

- ① 좋은 인품을 닦게 된다.

② 돈을 많이 번다.

(3) 본문 ㉡ ‘얼굴’의 중심이 되는 생각은?

- ① 겉 모양새를 중요시하자.
- ② 마음씨를 곱게 가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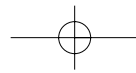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 2. ㉠ ㉡의 내용에 맞는 것에 ‘T’, 틀린 것에 ‘F’를 쓰세요.

- (1) 어떤 제과점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대여섯 명의 소년·소녀들이 만났다. ( )
- (2) 말씨는 곧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 준다. ( )
- (3) 사람들의 얼굴은 제각기 그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 )
- (4) 생김새는 미워도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다. ( )

### 3.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 ① 내 동생이 기뻐서 \_\_\_\_\_ 거리고 웃었다.
- ② 이 가방은 \_\_\_\_\_ 무겁다.
- ③ 실험을 하기 전에 \_\_\_\_\_ 요소를 공부하자.
- ④ 나는 그 문제를 \_\_\_\_\_ 풀 수가 없었다.
- ⑤ 어머니가 나를 \_\_\_\_\_ 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 ⑥ 사업에 실패했다고 \_\_\_\_\_ 안 된다.

<보기>   제과점,     깔깔,     전혀,     꽤  
                   거친,     구성,     첫인상,   비관하면





## 제 4 과 한국어 사전 찾기

### I 어휘력을 기르려면

같은 글을 읽으면서도 사람에 따라 그 글을 이해하는 정도와 속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내용이 쉽거나 어려운 것은,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단어에 대한 이해이다. 단어란 집의 벽돌처럼 글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독서를 많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게 된다.

둘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에서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흔히 쓰이는 단어도 사전적 의미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면 그때 그때 사전을 찾아 확인해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셋째, 글 속에서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정확한 쓰임새를 익히는 것이다. 하나의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는 어휘를 활용할 수 있다.

독서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알지 못하는 단어나 새로운 단어는 사전을 통해 찾아 익힘으로써, 어휘량을 늘리도록 한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길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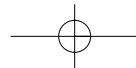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2 한국어 사전 찾는 방법

(1) 글자의 자모 순서에 따라 찾되, 첫 글자, 둘째 글자, 셋째 글자 순으로 찾는다.

자 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ㄹ ㅅ ㅆ ㅇ ㅈ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글’ 찾기 순서 : ㅎ → 하 → 한 → 한그 → 한글

‘읽다’ 찾기 순서 : ㅇ → 이 → 일 → 읽 → 읽다



(2) 글자의 형태가 같으면서 뜻이 여럿인 단어들은 그 단어의 어깨쪽에 <sup>1)</sup> <sup>2)</sup> <sup>3)</sup>, 또는 ① ② ③으로 구분하여 단어의 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다.

길<sup>1)</sup> ㉠ 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 ② 사람이 지켜 나  
아갈 도리. ③ 시간이나 공간을 거치는 과정. ④ 도중.  
⑤ 방법이나 수단.  
길<sup>2)</sup> ㉠ ① 익숙해진 솜씨. ② 손질을 잘 하여 생기는 윤기.

(3) 표준말로 찾는다. 사투리는 사전에 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준말로 고쳐서 찾는다.

으악새 → 억새

포도시 → 겨우

영판 → 아주

(4) 기본형으로 찾는다.

찾는다 → 찾다

고쳐서 → 고치다

우는 → 울다

(5) 형태소 별로 찾는다.

① ‘선생님께서’ → ‘선생’ + ‘님’ + ‘께서’

② ‘큰’ → ‘크다’(기본형) + ‘-ㄴ’

‘큼니다’ → ‘크다’(기본형) + ‘-ㅁ 니다’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사람마다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_\_\_\_\_

(2) 단어를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3) 사전을 찾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글자의 ( )의 순서에 따라 찾는다.

② ( ) 말로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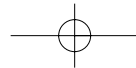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③ ( )으로 찾는다.

④ ( ) 별로 찾는다.

(4) 사전의 맨 앞부분에 있는 ‘일러두기’를 읽어 보고, 어떤 내용이  
이 썩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2. 다음 말을 바르게 따라 읽어 보세요.

• 못한다[모탄다] · 그렇지[그러치] · 접하게[저파게]



- 밀접한(밀찌판) · 깊은(기픈) · 활용(화룽)
- 먹는(멍는) · 국물(궁물) · 깎는(깡는) · 흠만(흥만)
- 달는(단는) · 짓는(진는) · 맞는(만는) · 놓는(논는)

### 3. 어법

- (1) • ~(으)로, ~(으)로써 : by~

[수단, 재료, 방법 등을 나타냄.]

-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단어의 뜻을 알게 된다.
-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다.

- (2) • ~것(이다) : the thing is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used with some modifier), 사실(fact) · 성질(nature) 등을 나타냄.]

-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 자연 식품을 먹는 습관은 좋은 것이다.

- (3) • ~도록 하다 : let ~ (do)

[어떤 목표(aim)나 방도(method)를 나타내는 어미 ‘-도록’ + ‘하다’ (조동사)]

- 부모님은 나에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한글 신문을 읽도록 하자.

- (4) • ‘ㅂ’ 불규칙 활용 (‘ㅂ’ irregular conjugation)

[모음 어미 앞에서 ‘ㅂ’ 이 ‘오/우’]로 바뀐.

- 한국어는 배우기가 쉬워요. [쉽다 → 쉬워요]
-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덥다 → 더워서] [춥다 → 추워서]
-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록 사회가 밝아집니다. [돕다→도울수록]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상준이는 서점에서 한영 사전을 찾고 있다.

상준 : 아가씨, 추천할 만한 한영 사전 있어요?

점원 : 사전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보실 거죠?

상준 : 내가 볼 건데요. 한국 동포거든요.

### 2. 대치 연습

- (1) 추천할 만한 좋은 책 있어요?



- 권할
- 가 볼
- 만나 볼
- 볼

- 연극
- 여행지
- 사람
- 영화

(2)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 생각이 다르기
- 얼굴이 똑같기
- 취미가 다르기

- 함께 일 할
- 구별할
- 어울릴

### Ⅲ. 연습 문제

1. ‘~도록 ~하다’를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고쳐 써 보세요.

(문맥에 따라 ‘~도록~하자’, ‘~도록~하여라’로 고쳐 써도 됨.)

<보기>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다. (← 노력하다)  
 →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1)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 (← 준비하다)

→ 언제든지 출발할 수

→

(2) 시험에 이기다. (← 최선을 다하다)

→ 시험에서

→

(3) 빙판(얼음 길)에서 넘어지지 않다. (← 조심하다)

→

→

(4) 후회하지 않다. (← 열심히 일하다)

→

→

2. 잘 어울리는 문장이 되도록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 보세요.

- |             |   |             |
|-------------|---|-------------|
| 최선을 다함으로써   | • | • 더욱 친해진다.  |
| 적성에 맞는 직업이  | • | • 성공할 수 있다. |
|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 • | • 좋은 것이다.   |
| 권할 만한       | • | • 그를 사랑한다.  |
| 친구를 믿음으로써   | • | • 좋은 책 있어요? |

3. 다음 ( ) 안에 제시된 말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A :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B : \_\_\_\_\_ (← 으로써)

A : 독해에서 단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B : \_\_\_\_\_ (← 때문이다)

## 제 5 과 두 편의 시

### Ⅰ 시란 무엇인가

시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느낌과 생각에서 우리나라는 심상(이미지)을 운율(리듬)이 있는 단어로 압축하여 나타내는 글이다.

따라서, 시에도 노래와 같은 말의 가락이 있으며, 이 가락에 따라서 시가 주는 감동의 폭도 달라진다. 또, 시 속에는 지은이의 중심 생각이 들어 있는데, 이를 시의 주제라고 한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생각이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비유나 상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깊이 음미하게 되면, 노래와 같은 가락을 느끼게 되고, 또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 단원에서는 각각 다른 운율과 주제를 지닌 두 편의 시를 통하여 시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자.

### ① 겨울 밤

박용래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 집 마늘 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 집 추녀 밑 달빛은 쌓이리.  
밭목을 걷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음,  
고향 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 2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 영변, 약산

‘영변’은 평안 북도 청천강 가에 있는 고장의 지명이며, ‘약산’은  
‘영변’에 있는 산 이름으로 한국에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곳임.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시의 주제란 무엇입니까?

(2) 시를 깊이 음미하게 되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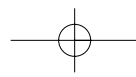
(3) ‘겨울 밤’의 지은이는 어떤 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  
니까?

(4) ‘진달래꽃’은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느끼게 합니까?

2. 바르게 읽어 보세요.

· 운율〔우눌〕· 복종〔복쫑〕· 좋아해요〔조아해요〕

· 까닭〔까닥〕· 쌓이리〔싸이리〕· 놓인〔노인〕· 밟고〔밟꼬〕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한국에서 온 호연이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솔이가 한국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솔 : 호연아, 한국의 날씨는 어때?

호현 : 사계절이 뚜렷해. 여름은 더운 반면에 겨울은 상당히 추운 편이야.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이지.

한솔 : 나도 한번 가 보고 싶구나!

### 2. 대치 연습

(1) 이 물건은 값이 싸 반면에 질이 안 좋다.

↑	↑	↑
• 저 선수는	• 키가 큰	• 행동이 느리다.
• 우리 학교는	• 역사가 짧은	• 시설이 좋다.
• 장미는	• 화려한	• 향기가 덜하다.

(2) 철호는 누구 못지않게 노래를 잘 부른다.

↑	↑	↑
• 우리 누나는	• 피아노를	• 친다.
• 내 동생은	• 그림을	• 그린다.

### 3. 문답 연습

A :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B : \_\_\_\_\_

## Ⅲ. 연습 문제

1. 다음 문장에 ‘~(으)ㄴ 반면(에)’를 넣어서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보기> 그는 부지런하다. 이기적(selfish)이다.  
→ 그는 부지런한 반면에 이기적이다.

(1) 그 직장은 월급이 많다. 일이 힘들다.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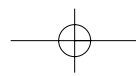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2) 우리 형은 공부를 잘 한다. 집안일을 잘 안 한다.

→ \_\_\_\_\_

(3)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외로울 때가 있다.

→ \_\_\_\_\_

2. 박용래의 ‘겨울 밤’과 김소월의 ‘진달래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구를 쓰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또, 자신의 시를 써 보세요.





<u>‘겨울 밤’ 중에서</u>	<u>‘진달래꽃’ 중에서</u>

· 내가 지은 시

3. 다음 시를 감상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의 ‘서시(序詩)’ —

시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위의 시를 여러 번 읽고, 그 뜻을 잘 파악하도록 하자.

※ 보충 학습 자료

■ 박용래(1925~1980)

한국 충남 부여에서 태어남. 1956년 「현대 문학」에 ‘가을의 노래’, ‘황토길’, ‘땅’으로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왔으며,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시를 썼음.

시집으로 「싸리눈」 등이 있음.



## ■ 김소월(1902~1935)

본명은 정식. 평북 광산에서 출생. 문예지 「창조」 5호(1920)에 작품을 발표한 이래 1920년대 가장 뛰어난 서정 시인으로 활동했음. 그는 민요적인 가락과 분위기를 잘 살려 흔히 민요 시인으로 불리고 있음. 시집으로 「진달래꽃」(1925)과 「김소월시초」(1939)가 있음.

## ■ 윤동주(1917~1945)

북간도 용정에서 출생. 1943년 독립 운동에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옥중에서 죽음. 그의 시는 서정과 동경(그리움), 민족의 애수와 이상과 정열을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음. 시집으로는 그가 죽은 뒤에 나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음.

## 제 6 과 제주도 여행

### Ⅰ 기행문의 의의

“자식을 사랑할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여행은 비단 성장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건문을 넓혀 주고, 삶을 여유롭게 해 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여행을 다녀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 때 느꼈던 감동들도 식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틈틈이 기록을 해 둔다면, 그 여행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글 속에 길이 남아, 보다 의미 있고 생생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행을 다녀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한다.

이 단원은 한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바람, 말, 소’를 주제로 한 기행문이다. 기행문을 읽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이한 풍경을 상상해 보자.

### 2 바 람

한 달 동안, 제주도에는 맑은 날씨가 며칠이나 계속될까?

## ■ 김소월(1902~1935)

본명은 정식. 평북 광산에서 출생. 문예지 「창조」 5호(1920)에 작품을 발표한 이래 1920년대 가장 뛰어난 서정 시인으로 활동했음. 그는 민요적인 가락과 분위기를 잘 살려 흔히 민요 시인으로 불리고 있음. 시집으로 「진달래꽃」(1925)과 「김소월시초」(1939)가 있음.

## ■ 윤동주(1917~1945)

북간도 용정에서 출생. 1943년 독립 운동에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옥중에서 죽음. 그의 시는 서정과 동경(그리움), 민족의 애수와 이상과 정열을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음. 시집으로는 그가 죽은 뒤에 나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음.

## 제 6 과 제주도 여행

### Ⅰ 기행문의 의의

“자식을 사랑할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여행은 비단 성장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건문을 넓혀 주고, 삶을 여유롭게 해 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여행을 다녀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 때 느꼈던 감동들도 식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틈틈이 기록을 해 둔다면, 그 여행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글 속에 길이 남아, 보다 의미 있고 생생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행을 다녀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한다.

이 단원은 한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바람, 말, 소’를 주제로 한 기행문이다. 기행문을 읽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이한 풍경을 상상해 보자.

### 2 바 람

한 달 동안, 제주도에는 맑은 날씨가 며칠이나 계속될까?

단 하루도 햇볕이 명랑하게 비치며 서산을 넘어가는 날이 없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구름과 비와 바람이 엇갈린다. 구름이 떠도는가 하면 비가 질금거리고, 비가 내리는가 하면 어느 새 해가 구름을 헤치고 얼굴을 반짝 내민다.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이다. 한나절도 못 가서 낮은 구름이 바람을 몰고 온다.

구름이 몰아 온 바람은 왜 그리 센지 ‘췌아췌아’ 소리가 난다. 먼저 분 바람이 미쳐 가기도 전에 다른 바람이 몰아치면, ‘휘이휘이’ 하고 먼지가 날려 제주도 천지는 안개 낀 날처럼 먼지 속에 뽀얗게 잠기게 된다.

이런 날이면 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으며,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새들도 날개의 힘만으로는 바람을 이길 수 없어, 공중에서 날개만 퍼덕거리며 전신주고 지붕이 고 아무데나 내려 앉는다.

### 3 소

순하기로 이름난 짐승이 소이며, 소 중에서도 순한 소가 제주 소이다. 산 속에서 야생으로 자라서 성질이 사나울 법한데, 육지 소보다 오히려 순해 보인다.

생김새를 보면, 암소도 황소 모양으로 이마가 넓적하고 꽃꽃하여 성미가 사나울 듯한데, 외양과는 판판으로 아주

순하다. 조금도 반항함이 없이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저 순종한다. 집에서 기르는 소도 육지에서처럼 고삐를 꼭 매어 두고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가서 먹이를 먹게 자유로이 놓아 준다. 그러면 소는 마음대로 풀을 찾고 물을 찾아 스무 마리든 서른 마리든 저희들끼리 떼를 지어 돌아다닌다. 제주도의 특이한 풍경이다.

### 4 말

말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 제주도이며, 몸이 작기로 이름난 것이 제주 조랑말이다. 산에 방목하여 기르는 짐승이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자랄 수도 있었을 텐데, 굴레를 쓰고 자란 육지 말보다 작음은 무슨 까닭일까?

밀짚 모자를 쓴 노인이 조랑말에 안장만 얹어 놓고 있다. 문득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동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기행문이란 어떤 글입니까?

\_\_\_\_\_

(2) 제주도의 특색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3) 제주도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_\_\_\_\_

(4) 제주도의 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_\_\_\_\_

(5) 본문에서 소리를 흉내낸 말(의성어)을 찾아 써 보세요.

\_\_\_\_\_

(6) 본문에서 모양을 흉내낸 말(의태어)을 찾아 써 보세요.

\_\_\_\_\_

2. 다음 말을 바르게 읽어 보세요.

- 넓혀〔넌퍼〕 • 삶을〔살믈〕 • 틸틈이〔틈트미〕 • 특색〔특쌌〕
- 햇볕이〔 빠치〕 • 뽕얏게〔뽕야케〕 • 앓는다〔안는다〕
- 많기로〔만키로〕 • 까닭일까〔까달길까〕 • 었어〔언저〕

### 3. 어법

(1) • ~르수록 : the ~er, the ~er

- 갈수록 태산이다.
-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The sooner, the better.)
- 이 책은 읽을수록 재미있다.
- 사람은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긴다. (The more one gets, the more one wants.)

(2) • ~뿐만 아니라 : not only ~but also-

-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좋다.
- 고려 청자는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아름답다.
- 그림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 합니다.

(3) • ~을/를 통해서 : through~ (using)

-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다.
- 나는 대학 생활을 통해서 자유와 진리를 배웠다.

(4) • 접속 부사(conjunctives)

- 그리고(and) : 그는 늦게 잔다. 그리고 늦잠을 잔다.

- 그러면(then) : 김치는 너무 매워서 못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 드시지요.
- 그래서(so) : 첫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 그래도(even though) : 김치는 아주 매워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잘 먹어요.
- 그러나(but) : 나는 올해 나이가 스물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린애로 여긴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혜영 : 은희야, 너 제주도에 가 본 적 있니?  
은희 : 제주도는커녕 서울도 못 가 봤어. 애.  
넌 가 봤니?  
혜영 : 그럼. 할아버지께서 제주도에 살고 계시거든.

### 2. 대치 연습

(1) 지만아, 너 불고기 먹어 본 적 있니?

• 한국에	• 가
• 한복을	• 입어
• 미식 축구를	• 해

(2) 한국말 잘 하세요? 잘 하기는커녕 조금도 못 해요.

• 컴퓨터 잘 하세요?	• 컴퓨터는	• 타자도 못 친다.
• 아기가 웃던가요?	• 웃기는	• 울기만 하더라.
• 지금 밖에 비 와요?	• 비는	• 구름도 안 끼었다.
• 네 동생 1등 했니?	• 1등은	• 5등도 못 했다.

### 3. 문답 연습

A : 김치와 불고기를 먹어 본 적이 있니?

B : \_\_\_\_\_

## Ⅲ. 연습 문제

1. 다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데 가장 잘 어울리는 접속 부사 (conjunction)를 <보기>에서 찾아 ( ) 안에 써 보세요.

(1) 철호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 )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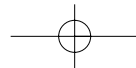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2) 형은 날 귀찮게 한다. ( ) 난 형이 좋다.

(3) 누나는 날 예뻐한다. ( ) 가끔 용돈도 준다.

(4) 형이 날 자꾸 놀린다. ( ) 난 형과 싸운다.

(5) 언니와 난 자주 다툰다. ( ) 금방 화해한다.

<보기>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2. <보기>와 같이 (     ) 안의 단어를 알맞게 고쳐 써 보세요.

<보기> 한국어는 배우기가 쉬운 편이다. (쉽다)

- (1) 한국의 여름은 \_\_\_\_\_ 편이다. (덥다)
- (2) 그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잘 \_\_\_\_\_ 주는 편이다. (돕다)
- (3) 내 동생은 \_\_\_\_\_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늦다)
- (4) 북극(the arctic) 지방은 \_\_\_\_\_ 사람이 살기 어렵다. (춥다)
- (5) 이 물은 너무 \_\_\_\_\_ 바로 먹을 수 없다. (뜨겁다)

3. 다음 문장에 어울리는 흉내내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 (1) 새싹이 \_\_\_\_\_ 돌아난다.
- (2) 나비가 \_\_\_\_\_ 춤을 춘다.
- (3) 바람이 \_\_\_\_\_ 분다.
- (4) 봄비가 \_\_\_\_\_ 내린다.
- (5) 할아버지께서 \_\_\_\_\_ 걸어가신다.
- (6) 고양이 목의 방울이 \_\_\_\_\_ 울린다.

<보기> 너울너울,     휘이휘이,     보슬보슬,  
 팔랑팔랑,     파룻파룻,     터벅터벅

4. 다음 문장에 어울리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 (1) 순이는 마음이 \_\_\_\_\_.
- (2) 제주도의 소는 성질이 \_\_\_\_\_.

(3) 제주도 말은 크기가 \_\_\_\_\_.

(4) 사자는 성질이 \_\_\_\_\_.

<보기> 착하다,     순하다,     사납다,     작다

5. 잘 어울리는 문장이 되도록 왼쪽과 오른쪽을 이으세요.

- |              |   |   |             |
|--------------|---|---|-------------|
| 이 책은 읽을수록    | • | • | 늘었나 봐요.     |
| 외국에서 일어난 일은  | • | • | 마음씨도 곱구나.   |
| 너는 예쁠 뿐만 아니라 | • | • | 더 재미있다.     |
| 이젠 예전 같지 않아요 | • | • | 신문을 통하여 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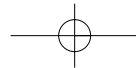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6. 다음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A : 학교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 ~(으)ㄴ 통해서 → B : \_\_\_\_\_  
 \_\_\_\_\_

A : 민수가 왜 결석했을까?

• ~나 봅니다. → B : \_\_\_\_\_  
 \_\_\_\_\_



7. 다음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색을 써 보세요.

말	꿀	바람
조랑말	해녀	소

## 제 7 과 한국의 속담

### Ⅰ

한국 속담 가운데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낮을 보면서도 낮처럼 생긴 기억(‘ㄱ’)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글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짧은 말을 속담이라고 한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거나, 좀 더 부드럽고 재미있게 나타내기 위하여 속담을 곧잘 섞어 쓴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고 위로해 준다면, 이보다 더 적절한 위로의 표현은 없을 것이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리 가 없듯이, 모든 정성을 다하여 힘쓴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뽐내는 친구에게 조언을 할 경우에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을 인용할 수도 있다. 이삭은 알이 여물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다. 이 속담에는 성공할수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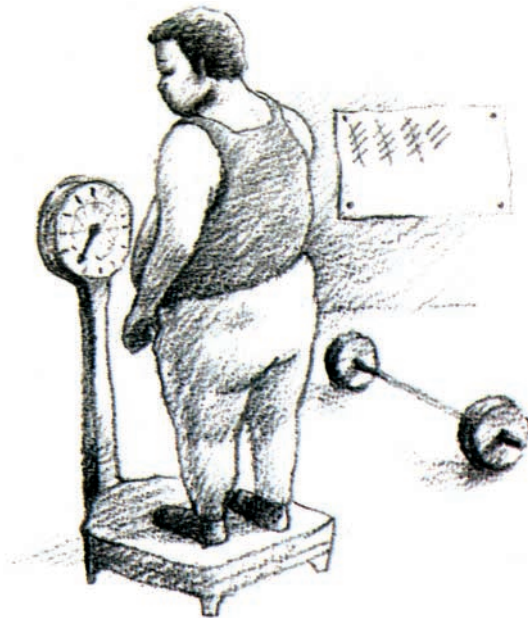


속담은 말 수는 비록 몇 마디 안 되지만,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지혜와 정서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속담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인용한다면 멋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 2

- 한 술 밥에 배부르랴?

한 손가락의 밥으로는 배가 부를 수 없듯이, 약간의 노력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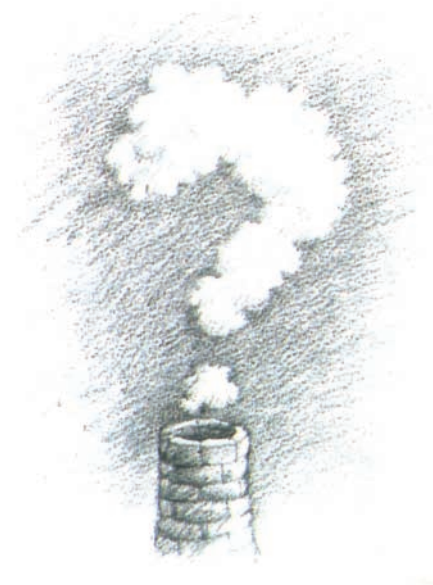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평소에 일을 잘 하는 사람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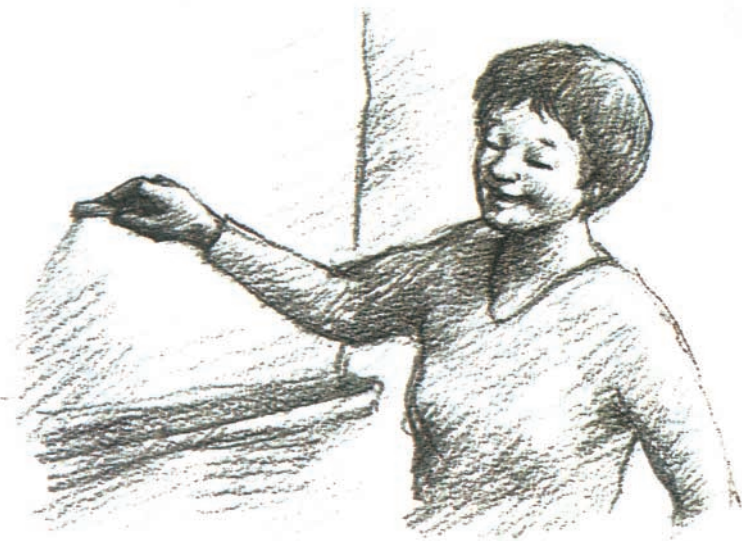
- 아니 뎌 굴뚝에 연기날까?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연기가 날까? 불을 땀기 때문에 연기가 났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원인이 있으므로 그 결과가 있다.



- 식은 죽 먹기 / 누워서 떡 먹기

뜨거운 죽은 먹기 힘들지만, 식은 죽은 먹기 쉽다. 또 일하지 않고 편안히 놀면서 떡을 먹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다.



3

철수 : 한국 축구 팀이 월드컵 축구 4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미호 : 글썄, 아마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울 거야.

철수 : 아냐, 길고 짧은 건 대 보아야 아는 거야.



남편 : 여보, 퇴근하면서 보니까 옆집에서는 경보 장치를 새로 달던데 무슨 일이 있었소?

아내 :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고장난 대문을 고치지 않고 수리를 미루다 그렇게 됐대요.

남편 :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군.



영희 : 순희가 이번 대학 시험에 떨어졌대.

은숙 : 그럴 줄 알았어.

영희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뽐내더니…….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의 글을 읽고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써 보세요.

① 처음 : \_\_\_\_\_

② 가운데 : \_\_\_\_\_

③ 끝 : \_\_\_\_\_

(2) 속담이란 어떤 말인가요?

\_\_\_\_\_

(3) 일상 생활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_\_\_\_\_

(4) 다른 글과 비교했을 때, 속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5) 훌륭한 일을 하고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속담을 써 보세요.

\_\_\_\_\_

2. 다음 단어를 바르게 따라 읽어 보세요.

- 기억자〔기억짜〕
- 속담〔속땀〕
- 일상〔일쌍〕
- 담고〔담꼬〕
- 밭지〔밭찌〕
- 부드럽고〔부드럽꼬〕

2. 어법

(1) • ~고자 하다 : intend to ~

[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렇게 하려는 욕망(want)을 표현함.]

- 나는 내년쯤에 한국에 가고자 한다.
- 희망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면 노력해야 한다.

(2) • (아마)~(으)ㄴ 거야 : will probably

[말하는 사람의 확실하지 않은 짐작(guess)이나 추측(conjecture)을 나타냄. ‘~ㄴ 것이야’의 준말(abbreviation)은 ‘~ㄴ 거야’, 높임말(an honorific)은 ‘~ㄴ 거예요’, ‘~ㄴ 겁니다’]

- 이번 겨울에는 아마 눈이 많이 올 거야.
- 1년 후에는 한글로 편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3) • ~ㄴ/는대요, ~다고 해요 : be said~

[서술형(a declarative form)으로 끝나는 인용문(the quoted sentence) ‘~다’ 뒤에 ‘~고 하다’를 연결하여 간접적으로 인용할 때 쓰는 표현.]



- 누가 심부름 좀 갈래? / 철수가 간대요.
- 그 곳은 지금 눈이 온다고 해요.

- (4) • ‘으’ 탈락, ‘ㄹ’ 탈락 (omit of ‘으’, ‘ㄹ’)

[① 어간의 말음 ‘으’가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함.

쓰 + 어 → 써 / 기쁘 + 었다. → 기뻐다.

② 어간의 말음 ‘ㄹ’이 어미 ‘-ㄴ’, ‘-ㅁ’, ‘-ㅂ’, ‘-ㅅ’, ‘-ㅇ’ 앞에서 탈락함.

울 + 다 → 우르 + 는 → 우는 / 우르 + 세요 → 우세요  
→ 우르 + ㅂ니다 → 옵니다]

- 나는 한글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다.
- 내가 사는 곳은 미국이다. 그건 저도 압니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아버지께서는 10년 만에 한국에 가셔서 큰아버님을 만나 셧다.

아버지 : 형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큰아버지 : 응, 그저 그렇지. 자넨 어쩐가?

아버지 : 예전 같지 않아요. 저도 이젠 나이가 들었나 봐요.

큰아버지 : 건강 조심하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 2. 대치 연습

(1) 왜 이리 캄캄해요? 전기가 나갔나 봐요.

- |                |            |
|----------------|------------|
| • 재, 왜 일어나지?   | • 재미 없나    |
| • 저 꼬마, 왜 울어?  | • 넘어졌나     |
| • 저 친구, 왜 저래요? | • 시험에 떨어졌나 |
| • 갑자기 추워지네요.   | • 눈이라도 오려나 |

(2) 새로 전학 온 친구 어때요? 그저 그래요.

- 지금 살고 있는 집    • 새로 산 컴퓨터    • 어제 본 영화

### 3. 문답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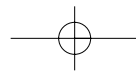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                         |                |
|-------------------------|----------------|
| A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A : 시험은 잘 봤어요? |
| B : <u>그저 그렇게 지내요</u> . | B : _____      |
| A : 사업은 잘 되세요?          | A : 음식 맛은 어때요? |
| B : _____               | B : _____      |

## Ⅲ. 연습 문제

1. ‘~(으)려면’, ‘~야 한다’를 넣어서 <보기>와 같이 쓰세요.

<보기> 친구에게 충고하다. 신중하다.

→ 친구에게 충고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1) 좋은 친구가 되다.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다.

→ \_\_\_\_\_

(2) 훌륭한 학생이 되다. 착한 일을 하다.

→ \_\_\_\_\_

(3) 남에게 대접을 받다. 남을 먼저 대접하다.

→ \_\_\_\_\_

(4) 대학에 가다. 시험 성적이 좋아야 한다.

→ \_\_\_\_\_

2. 서로 잘 어울리는 문장끼리 이어 보세요.

- |              |   |   |            |
|--------------|---|---|------------|
| 왜 이리 추워요?    | • | • | 교통이 막히나 봐. |
| 네 동생 왜 우니?   | • | • | 피곤한 모양이야.  |
| 왜 이렇게 늦는 거지? | • | • | 불이 꺼졌나 봐요. |
| 왜 이리 잠이 오지?  | • | • | 넘어져서 다쳤대.  |
| 왜 이리 비싸지?    | • | • | 좋은 것인가 봐.  |

3. 다음 속담의 속뜻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세요.

- <보기> • 협동(cooperation)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면 더 쉽다.
- 말조심(care in speaking)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늘 말조심해라.
- 노력(endavor)  
약간의 노력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 한 술 밥에 배부르랴? ( )

→ \_\_\_\_\_

(2)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

→ \_\_\_\_\_

(3)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

→ \_\_\_\_\_

4. <보기>와 같이 ( ) 안의 낱말을 고쳐 써 보세요.

<보기> 나는 한글로 편지를 써 보냈다. (← 쓰다)

(1) 너무나 \_\_\_\_\_ 눈물이 나왔다. (←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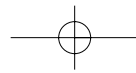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2) 현 옷을 \_\_\_\_\_ 걸레를 만들었다. (← 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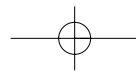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3) 언니는 나와 헤어지는 게 \_\_\_\_\_ 엉엉 운다. (← 슬프다)

## ※ 보충 학습 자료

### ■ 속담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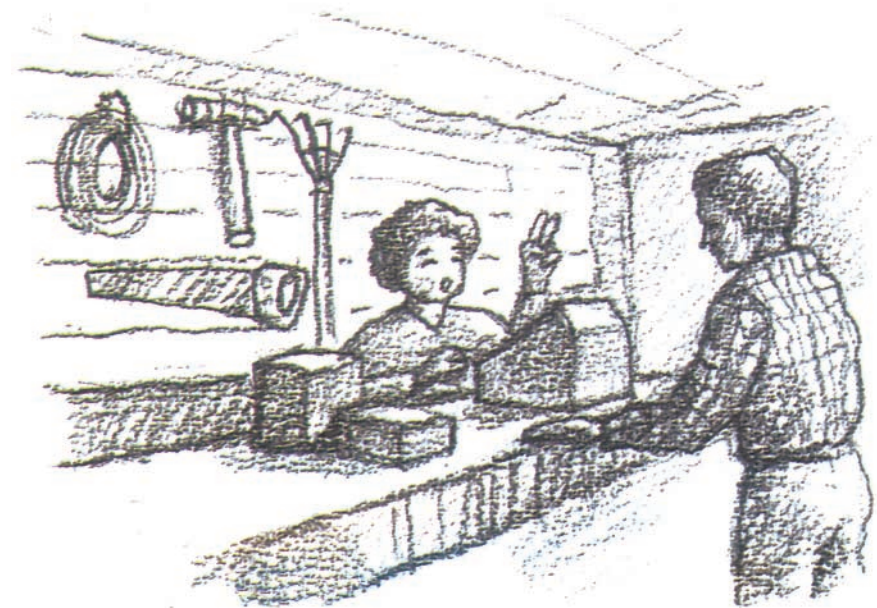
- 가는 날이 장날이다. :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는 뜻(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인 의미를 담고 있음).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무슨 일이나 내가 먼저 남에게 잘 해 줘야만 남도 나에게 잘 해 준다.
- 갈수록 태산이다. :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중에 더 어려운 일이 겹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 : 질도 좋고 모양도 좋은, 즉 보기에도 좋은 것을 고른다.
- 구관이 명관이다. : 지금 것보다 전의 것이 더 좋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이라도 완전히 끝을 맺지 못하면 소용 없다.
- 그림의 떡 :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다.
- 금강산도 식후경 : 아무리 좋은 일도 배가 부른 뒤에 해야 좋다.
- 우물에서 승냥 찾기 : 아무리 바빠도 절차를 밟아야 함.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 지레 짐작으로 너무 서두르는 경우에 쓰는 말.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공교롭게도 두 가지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오해할 경우가 있을 때 쓰는 말.
-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
-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 아무리 믿을 만한 일이라도 조심해서 하라.
- 등잔 밑이 어둡다. :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모른다.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믿고 있던 일이나 사람에게 실패나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말.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면 더 쉽다.

## 제 8 과 나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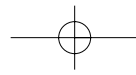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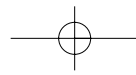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5월 8일

그 동안 파트 타임으로 일해 오던 햄버거 가게를 그만 두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해킨절이라는 곳에서 파트 타임 캐셔로 일하게 되었다.

주로 집 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인데, 주말에 놀러 다니지 않고 이 곳에 오는 남자 어른들이나 여자 어른들은 모두 살림꾼들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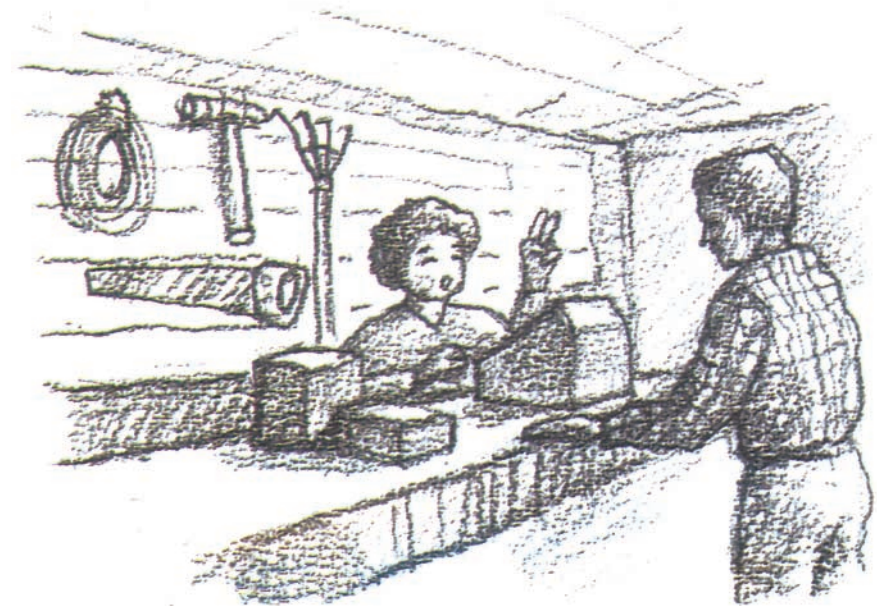
3일 간의 훈련을 거쳐 처음에 나 혼자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직접 부딪쳐서 해 보니





-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 : 질도 좋고 모양도 좋은, 즉 보기에도 좋은 것을 고른다.
- 구관이 명관이다. : 지금 것보다 전의 것이 더 좋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이라도 완전히 끝을 맺지 못하면 소용 없다.
- 그림의 떡 : 실제에 아무 소용이 없다.
- 금강산도 식후경 : 아무리 좋은 일도 배가 부른 뒤에 해야 좋다.
- 우물에서 숭늉 찾기 : 아무리 바빠도 절차를 밟아야 함.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 지레 짐작으로 너무 서두르는 경우에 쓰는 말.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공교롭게도 두 가지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오해할 경우가 있을 때 쓰는 말.
-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
-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 아무리 믿을 만한 일이라도 조심해서 하라.
- 등잔 밑이 어둡다. :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모른다.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믿고 있던 일이나 사람에게 실패나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말.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면 더 쉽다.

## 제 8 과 나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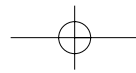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5월 8일

그 동안 파트 타임으로 일해 오던 햄버거 가게를 그만 두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해킨절이라는 곳에서 파트 타임 캐셔로 일하게 되었다.

주로 집 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인데, 주말에 놀러 다니지 않고 이 곳에 오는 남자 어른들이나 여자 어른들은 모두 살림꾼들임에 틀림없다.

3일 간의 훈련을 거쳐 처음에 나 혼자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직접 부딪쳐서 해 보니





요령도 생겨 이제는 별 지장 없이 혼자 거뜬히 일을 해낼 수 있다.

모든 건 처음이 고비이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게 마련인가 보다.

처음엔 배우는 중이라 정신이 없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또, 발이 아픈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계속 서 있으면 발이 아픈 걸 느낄 정도다. 이만하면 제법 능숙해져 간다는 증거가 아닐지.

곧 여름 방학도 시작될 텐데 집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일 주일에 몇 번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적어도 내 용돈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식구들의 생일 때 작은 선물도 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쁘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 저금을 해서 나중에 내 차를 구입할 때 보태 쓸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고등 학교에 다니면서도 노력하면 파트 타임 직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경미의 ‘이민 일기’ 중에서)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이 일기를 읽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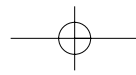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1) 경미의 일기를 읽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 (2) 일기의 어느 대목이 재미있습니까?
- (3) 경미가 일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 (4) 학생은 일한 적이 있습니까? 경미가 한 일과 비교해서 말해 보세요.
- (5) 학생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경미의 일기와 학생의 일기는 무엇이릅니까?

2. 다음 빈 곳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경미는 \_\_\_\_\_ 으로 일해 오던 햄버거 가게를 그만 두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3일간의 \_\_\_\_\_ 거쳐 지금은 별 지장 없이 일을 거뜬히 한다. 경미는 \_\_\_\_\_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보기> 파트 타임, 훈련을, 무의미하게





### 3. 어법

- (1) • 얼마나 ~지 모른다 : you don't know how much ~  
 •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모른다.  
 (I missed my mom very much. = You don't know how much I missed my mom).  
 •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 추워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
- (2) • ~마련인가 보다 : It seems natural that~  
 / It looks to me that~  
 • 꽃은 시들게 마련인가 보다.  
 •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게 마련인가 보다.  
 • 봄이 되면 꽃이 피게 마련인가 보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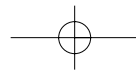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경미 : 계속 서 있으면 발이 아픈 걸 느낄 정도야.  
 선미 : 그렇게 힘들면 그만 두지 그래.  
 경미 : 하지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나아.  
 선미 : 그렇지만 병이 나면 소용이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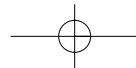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2. 대치 연습

- (1) 그렇게 | 힘들면 그만 두지.  
 | 먹으면 배탈나지.  
 | 아프면 쉬어야지.
- (2) 무의미하게 | 시간을 보내는 |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나아.  
 | 떠드는  
 | 자는  
 | 노는
- (3) | 병이 나면 | 소용이 없잖아.  
 | 죽으면  
 | 없어지면  
 | 잃어버리면  
 | 늦으면

## Ⅲ. 학습 문제

1.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의 기호를 ( ) 안에 쓰세요.
- (1)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 ) ㉠ 넘어졌다.  
 (2) 발이 돌에 걸려서 ( ) ㉡ 학교에 늦지 않았다.  
 (3) 너무 힘들어서 ( ) ㉢ 돈을 벌어서 저축할 수 있다.  
 (4)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 ) ㉣ 감기에 걸렸다.  
 (5) 옷을 얇게 입어서 ( ) ㉤ 그만 두었다.





2. 밑줄 그은 부분의 뜻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1) 해킨절이라는 곳에서 파트 타임 캐셔로 일하게 되었다.

- 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정규 직원
- ② 그때 그때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는 점원

(2) 주로 집 안에 필요한 장비나 연장을 갖춘 곳이다.

- ① 신발, 양말, 핸드백
- ② 망치, 청소기, 전기통

(3) 별 지장 없이 혼자 거뜰히 일을 해낼 수 있다.

- ① 힘 들이지 않고
- ② 힘들게

(4) 처음엔 배우는 중이라 정신이 없었다.

- ① 생각이 없었다.
- ② 바쁘고 어려웠다.

(5) 이만하면 제법 능숙해져 간다는 증거가 아닐지.

- ① 보통 수준에 가깝게
- ② 쓸데없이

3. 잘못 쓴 단어를 모두 찾아 내어 바르게 고쳐 보세요.

(1) 이 곳에 오는 남자 어른들이나 여자 어른들은 모두 살님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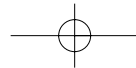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2) 처음에 나 혼자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3) 직접 부디쳐서 해 보니 요령이 생긴다.

(4) 시간이 어터케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업다.

(5) 저거도 내 용돈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조타.

(6) 노력하면 얼마던지 구할 수 이써 감사하게 생가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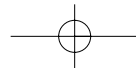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제 9 과 문장의 끝맺음과 높임

### I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문장의 끝맺음이 달라진다. 이 끝맺음의 방식에 따라 문장의 종류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어는 ‘하시오’, ‘하라’와 같은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말을 높이거나 낮추어 쓴다. 또 한국어에는 ‘여쭙다’, ‘드리다’와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높임이나 존경을 표시하는 어휘가 많다.

문장의 끝맺음과 높임말, 낮춤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익혀 두어야 한다.



2. 밑줄 그은 부분의 뜻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1) 해킨절이라는 곳에서 파트 타임 캐셔로 일하게 되었다.

- 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정규 직원
- ② 그때 그때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는 점원

(2) 주로 집 안에 필요한 장비나 연장을 갖춘 곳이다.

- ① 신발, 양말, 핸드백
- ② 망치, 청소기, 전기통

(3) 별 지장 없이 혼자 거뜰히 일을 해낼 수 있다.

- ① 힘 들이지 않고
- ② 힘들게

(4) 처음엔 배우는 중이라 정신이 없었다.

- ① 생각이 없었다.
- ② 바쁘고 어려웠다.

(5) 이만하면 제법 능숙해져 간다는 증거가 아닐지.

- ① 보통 수준에 가깝게
- ② 쓸데없이

3. 잘못 쓴 단어를 모두 찾아 내어 바르게 고쳐 보세요.

(1) 이 곳에 오는 남자 어른들이나 여자 어른들은 모두 살님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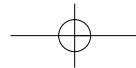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2) 처음에 나 혼자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3) 직접 부디쳐서 해 보니 요령이 생긴다.

(4) 시간이 어터케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업다.

(5) 저거도 내 용돈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조타.

(6) 노력하면 얼마던지 구할 수 이써 감사하게 생가칸다.



## 제 9 과 문장의 끝맺음과 높임

### I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문장의 끝맺음이 달라진다. 이 끝맺음의 방식에 따라 문장의 종류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어는 ‘하시오’, ‘하라’와 같은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말을 높이거나 낮추어 쓴다. 또 한국어에는 ‘여쭙다’, ‘드리다’와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높임이나 존경을 표시하는 어휘가 많다.

문장의 끝맺음과 높임말, 낮춤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익혀 두어야 한다.

## 2

### 문장의 끝맺음

- (1) 철수는 한국어를 배운다. [배웁니다.]
- (2) 철수는 한국어를 배우느냐? [배웁니까?]
- (3) 철수야, 한국어를 배워라. [철수 씨, 배우세요.]
- (4) 철수야, 한국어를 배우자. [철수 씨, 배웁시다.]
- (5) 철수가 한국어를 배우는구나! [배우는군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의 문장의 종류는 문장의 끝맺음에 의해 좌우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평서문 :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
- (2) 의문문 : 질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
- (3) 명령문 :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문장
- (4) 청유문 :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문장
- (5) 감탄문 :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문장

## 3

### 높임과 낮춤

- 어머니 : 은주야, 일기 어디에다 썼니?  
 은 주 : 어머니가 사 준 일기장에다 썼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좀 깨워 주세요.  
 어머니 : 알았다. 그럼 잘 자거라.  
 은 주 : 네, 어머니도 안녕히 자세요.

은주의 말은 어딘가 어색하다. 왜 그럴까? 높임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예삿말 이외에 높임말, 낮춤말이 있다. 높이는 방법에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용언의 어간에 ‘-시-’를 붙이거나, ‘-아요’, ‘-(스)니다’로 문장을 끝낸다. 또는 ‘계시다’, ‘말씀하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별한 어휘를 써서 높이기도 한다.

낮추는 방법에는 ‘-다’, ‘-냐?’, ‘-게’, ‘-어(라)’, ‘-자’와 같은 서술 형태로 문장을 끝낸다.

## 4

### 할아버지 생신

삼촌 : 은희야,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은희 : 글썄, 잘 모르겠는데요. 삼촌께서는 아세요?

삼촌 : 할아버지 생신이야.

은희 :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바쁘셨구나!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삼촌 : 할아버지께서는 요즈음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진지도 잘 안 잡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연세도 많으신데, 걱정이구나.

## 5

### 문화재

선생님 : 우리는 문화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우수성과 조상의 숨결을 알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 누가 말해 보겠어요? 은수가 발표해 보세요.

은수 : 고려 청자, 금속 활자가 훌륭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 : 그래요? 은수는 한국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럼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시다.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한국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_\_\_\_\_

(2)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일을 한국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 \_\_\_\_\_

(3) 여러분이 보았거나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재를 적어 보세요.

→ \_\_\_\_\_

(4) 문장의 종류별로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① 평서문 : \_\_\_\_\_

② 의문문 : \_\_\_\_\_

③ 명령문 : \_\_\_\_\_

④ 청유문 : \_\_\_\_\_

⑤ 감탄문 : \_\_\_\_\_

(5) 다음과 같은 높임과 낮춤의 방법으로 문장을 써 보세요.

① 주체 높임법(Subjet Evaluation)

→ \_\_\_\_\_

② 상대 높임법(Hearer Evaluation)

→ \_\_\_\_\_

③ 어휘 높임법(Evaluation by Special Words)

→ \_\_\_\_\_

2. 다음 말을 바르게 읽어 보세요.

· 끝맺음〔끈매춤〕 · 종류〔종류〕 · 예삿말〔예산말〕

· 익혀〔이켜〕 · 붙이거나〔부치거나〕 · 같이〔가치〕

3. 어법

- (1) • ~(아/어, 여) 두다 / ~놓다 : to do something and keep it that way

[보조 동사의 일종으로서, 행위의 결과가 지속됨(continued)을 나타냄.]

• 관심을 가지고 익혀 두어야 한다. / 익혀 놓아야

• 차표를 미리 사 두는 게 좋아요. / 사 놓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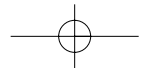
- (2) • ~(으)ㄴ 적이 있다 : to have ever happened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 과거의 경험이 있음을 나타냄.]

• 나는 김치를 먹어 본 적이 있다.

• 너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구나!

(You might haven't been to Korea.)



- (3) • ~(으)면~ : if~

[어떤 사실이나 바라는 바를 조건적으로 말할 때 쓰임. 문장의 끝에 와서 말줄임표(……)와 함께 쓰이기도 함.]

- 금강산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 할머니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면…….

- (4) • ‘ㄷ’ 불규칙 활용 ( ‘ㄷ’ irregular conju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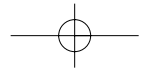
[모음의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뀜. 듣 + 다 → 듣 + 으면 → 드 + ㄹ + 으면(들으면)]

- 걷다(walk) :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cf. 나는 팔을 捲었다(roll up).  
돈을 捲었다(collect).
- 묻다(ask) : 모르는 것은 형한테 물어 보아라.  
cf. 서울 특별시는 지난 10월에 타임 캡슐을 묻었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명수는 한국에 있는 한국어 교수인 김수지 씨에게 국제 전화를 하고 있다.  
교환원 : 여보세요. 한국 대학교입니다.



명 수 : 여보세요. 여긴 미국인데요. 김수지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교환원 : 지금은 통화 중이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 2. 대치 연습

- (1) 나는 휴가 중에 그 소식을 들었다.

• 우리가	• 자고 있는	• 도둑이 들었다.
• 나는	• 공부를 하던	• 잠이 들었다.
• 우리가	• 졸업 파티를 하고 있는	• 정전이 됐다.

- (2)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에 쓰는 말을 옆의 친구와 주고받아 보세요.

(A)

- 김 선생님 좀 바꿔 주세요.
- 사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홍철이 집에 있습니까?
-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세요.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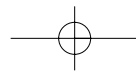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실례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 지금 회의 중인데요.
- 외출/출장/샤워 중이에요.
- 네, 알겠습니다.

### 3. 문답 연습

- 빈 곳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A : 영철이 친구데요, 영철이 좀 바꿔 주세요.

B : 지금 집에 없는데, \_\_\_\_\_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 Ⅲ. 연습 문제

1. ~아/어 두다'를 넣어서 <보기>와 같이 고쳐 쓰세요.

<보기> 관심을 가지고 익혀 두다. (← 익히다)

- (1) 이 책은 책상 위에 그대로 \_\_\_\_\_ 라. (← 놓다)
- (2) 자주 보는 책은 제자리에 \_\_\_\_\_ 라. (← 꽃다)
- (3) 예능 과목은 어렸을 때 \_\_\_\_\_ 게 좋다. (← 배우다)
- (4) 친구는 평소에 친하게 \_\_\_\_\_ 야 한다. (← 사귀다)
- (5) 공부는 꾸준히 \_\_\_\_\_ 야 한다. (←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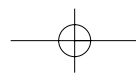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2. 다음 <보기>의 문장을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고쳐 써 보세요.

<보기> 컴퓨터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 (1) 의문문 : \_\_\_\_\_
- (2) 감탄문 : \_\_\_\_\_

<보기> 불우한 이웃을 돕습니까?

- (1) 평서문 : \_\_\_\_\_
- (2) 감탄문 : \_\_\_\_\_
- (3) 청유문 : \_\_\_\_\_
- (4) 명령문 : \_\_\_\_\_



<보기> 단풍이 곱게 물들었구나!

- (1) 평서문 : \_\_\_\_\_
- (2) 의문문 : \_\_\_\_\_

3. 다음 문장의 끝 (     ) 안에 쓰인 단어를 주어로 하여 알맞게 고쳐 써 보세요.

<보기> 영수는 아침 밥을 먹는다. (← 할아버지)  
→ 할아버지께서는 아침 진지를 잡수신다.

- (1) 태호는 어디서 왔니? (← 선생님)  
→ 선생님 \_\_\_\_\_ 어디서 오 \_\_\_\_\_ ?
- (2) 영수가 이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 어머니)  
→ 어머니 \_\_\_\_\_ 이것을 아버지 \_\_\_\_\_ 갖다  
\_\_\_\_\_ .
- (3) 동생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갔다. (← 할아버지)  
→ 할아버지 \_\_\_\_\_ 이 \_\_\_\_\_ 병원에 \_\_\_\_\_ .
- (4) 네 형은 자니? (← 아버지)  
→ \_\_\_\_\_
- (5) 우리 집은 여기서 멀어요. (← 큰아버지)  
→ \_\_\_\_\_

4. <보기>와 같이 (     ) 안의 단어를 넣어서 고쳐 써 보세요.



〈보기〉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 걷다)

- (1) 나는 음악을 \_\_\_\_\_ 으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 (← 듣다)
- (2) 내 잘못을 \_\_\_\_\_ 았을 땐 이미 늦어 버렸다. (← 깨닫다)
- (3) 내가 모르는 문제는 형에게 \_\_\_\_\_ 보았다. (← 묻다)
- (4) 무거운 짐은 내 차에 옮겨 \_\_\_\_\_ 자. (← 싣다)

## ※ 보충 학습 자료

### 1. 종결 어미(Terminative endings)에 의한 문장의 종류

한국어는 서술어에 의해 문장이 끝나며, 끝맺음의 방식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로 문장의 종류가 구분되고, 각 종류에 따른 예문 및 종결 어미의 예는 다음과 같다.

평서문 : 한국의 날씨는 좋다. [—습니다, —아요, —아, —네]

의문문 : 한국의 날씨는 좋으냐? [—습니까, —아요, —아, —니]

명령문 : 사전을 찾아보아라. [—(시)시오, —세요, —거라]

청유문 : 사전을 찾아보자. [—(시)시다, — (시)지요, —세]

감탄문 : 날씨가 참 좋구나! [—군요, —군, —아라/—어라]

### 2. 고려 (상감) 청자 : 고려 자기(Inlaid Celadons of Koryo)

고려 청자는 한국의 고려 시대(10~12세기)에 만들어진 자기로서, 한국 미술의 최고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고려 청자의 우수성은 아름답고 맑은 비취 색깔(nephrite color), 균형잡힌 형태미(balanced

form), 상감 기법(inlaying technique),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의 아름다움에 있다. 상감 청자는 고려에서만 독특하게 발달한 것으로, 고려 사람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3. 금속 활자(Metallic Printing Types)

한국에서는 이미 13세기 초(고려 시대)에 납이나 구리로 만든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를 하였다. 이는 서양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활자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것이다. 1234년에는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상정고금예문’이라는 책을 인쇄하였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경’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 제 10 과 극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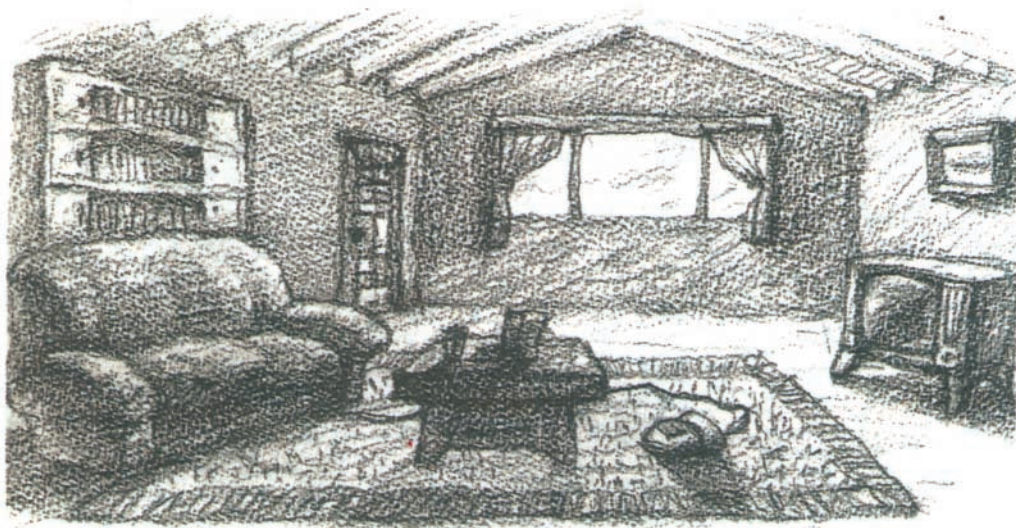
### 은정이네 저녁 시간

[이 연극은 ‘부모와 자녀는 바람직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학생회나 학부모회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민 것임.]

△ 때 : 저녁

△ 곳 : 은정이네 거실

△ 나오는 사람 : • 아버지 • 어머니 • 큰딸 은정  
• 작은딸 미영 • 아들 성민



은정 : (통화 중) 그래도 안 돼. 학교에서 가는 여행 이외에는 생각도 못 해. 여자는 밖에서 자는 게 아니래. 다른 것은 멋쟁이이신데, 그 점만은 19세기 부모라고 생각해.

성민 : 왜 채널을 바꿔? 그냥 뒤…….

은정 : (동생들을 보고) 쉬잇! 전화 하고 있어. (소리를 바꿔서) 그런데 스잔은 뭘 하고 있을까? 뭐, 너 스잔을 만났다고? 너희들은 좋겠다. 나만 방학이 시시하게 끝나겠어. (딩동댕 덩동댕)

성민 : 엄마, 아빠 오셨어. (현관으로 급히 간다.)

엄마 : 애들은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미영 : (TV를 보면서) 하이, 하이.

은정 :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며) 다녀 오셨어요?

아빠 : 너희들은 언제나 같구나. 전화를 걸지 않으면, TV나 보고……. 그래, 오늘도 셋이 다 학원에 갔었니? 비싼 수업료를 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알았지?

미영 · 성민 : 예, 그럼요, 아빠.

엄마 : (방바닥에서 책을 집어들며) 왜 밤낮 쓸데없는 소설책만 읽고 있지? 교과서를 읽어, 교과서를. 큰누나처럼 공부를 잘 하려면…….

미영 : 우리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한대요. 살아가는 것도 배우고, 영어도 느다고 하셨는데…….

은정 : 애, 지금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돌아오셨어. 전화 끊어야 돼. 아주 싫어하시거든. 그럼, 바이 바이.

엄마 : 전화 좀 짧게 해라. 지난 달 전화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있지?

은정 :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여행하고, 피서 가고……. 다 신이 나는데, 우린 이게 뭐예요?

성민 : 난 방학이 없는 게 좋아요. 매일 심심해요.

미영 :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온 가족이 바캉스로 제주도로도 가고, 설악산에도 가고…….

엄마 : 애들아, 엄마 아빠는 매일 열 시간씩 일하고 있잖아. 다 너희들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은정 · 미영 : 언제나 같은 소리……. (둘이 다 귀를 막는다.)

성민 : I hate it!

아빠 : (샤워를 하고 나오며) 그래, 그래,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너희들은 나가서 일하고, 엄마하고 아빠는 학원에 갈까? 여보, 애들이 소설책을 읽으면 어떻고, 전화를 길게 걸면 어떻소? 애들이 빗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도 고맙지 않소.

은정 : 아빠가 다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 : 당신 때문에 애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 민족이니까 공부를 더 잘 해야 돼요. 왜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게 해요? 공부를 잘 해야지만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잖아요?

성민 : 난 아버지 편이에요. 그래서 예술가가 되겠어요.

미영 : 엄마, 아빠 생각이 이렇게 다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두 팔을 펴고 어깨를 올렸다 내린다.)

은정 : 엄마, 아빠 두 분이 잘 의논하셔서 저희들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을 좀 믿어 주세요. 착한 아이들이라고 말이에요. 매일 어린이 다루듯 하시니까 속상해요.

아빠 : 너희들이 제법 컸구나. 하는 소리가 어른다워서 기쁘다. (성민을 가리키며) 너 이리 와서 내 무릎에 앉아 봐. 어서.

엄마 : 당신이 그렇게 애들을 버릇없이 굴게 만드시니까 제 멋대로지요. 다 큰 아이들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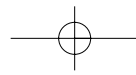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성민 : 엄마, 샤워하세요. 어서 어서. (엄마의 등을 밀어 낸다.)

은정 : 아빠, 우리는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말 건가요?

미영 : 주말에 다 같이 여행가요, 아빠.

아빠 : 너희들 용돈 필요하냐?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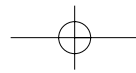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성민 : 아이 좋아. 나 10달러만 주세요. 새 학기에 쓸 학용품 사야 돼요.



은정 : No, 비밀! 너 그 돈 엄마 앞에서 받도록 해.  
 미영 : 아빠, 제 생일 언젠지 아세요?  
 아빠 : 알고 말고, 분명 여름인데…….  
 성민 : 8월 27일이잖아요, 아빠.  
 아빠 : 물론, 나도 알고 있어. 8월 27일이지.  
 미영 : 성민아, 너 왜 가르쳐 드렸어? 아빠, 제 생일에 친구  
 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엄마 : (타올을 들고 나오면서) 아이, 당신 애들 생일 하나  
 기억 못하시고, 결혼 기념일 따위는 아예 없고…….  
 창피하시지요? 애, 그래, 어떤 애들을 몇 명이나 초  
 대하고 싶어?  
 미영 : 우리 반 아이들 15명쯤 말이에요. 나도 매번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엄마 : 전부 공부 잘 하는 애들이냐? 동양 애들이냐? 남자  
 애들도 데리고 올 거야?  
 은정 : 아이, 엄마. 그런 생각은 차별 대우예요. 우리는 누구  
 하고나 잘 사귀도록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다 미영이에게 맡기세요.  
 성민 :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미영 : 난,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만 데리고 와야지.  
 엄마, 괜찮지요?  
 성민 : (손뼉을 치며) 누나, 정말 그래 봐.  
 엄마 : 애들이 사뭇 엄마를 가지고 노는구나, 호호호…….

아빠 :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헬로. 애, 누구 전화받아  
 라. (성민이 일어서자) 아니, 너 말고 큰누나 오래.  
 웬 미국 사람이… (전화를 건네 주며) 영어가 너무  
 빨라서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은정아, 너 전화 좀 받  
 아 봐라.  
 은정 : Hello! Oh, Yes, Bye.  
 아빠 : 뭐라고 그러더냐?  
 은정 : ‘Parents Magazine’ 잡지사에서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 끝 —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 극본 ‘은정이네 저녁 시간’을 읽고, 누구의 대사인지 <보기>에서 찾아 답해 보세요.

<보기> • 아버지 • 어머니 • 은정

- \_\_\_\_\_ : 소설책은 읽지 마라.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지.
- \_\_\_\_\_ : 엄마, 우리 선생님은 소설책을 많이 읽으래요.
- \_\_\_\_\_ : 여보, 은정이 말이 맞아요, 애들이 건강하게만 크면 되지, 소설책을 읽든 전화를 하든 놔 둥시다.
- \_\_\_\_\_ : 안 돼요,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 버릇이 없죠. 은정이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해요.
- \_\_\_\_\_ : 엄마, 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 다음 대사와 어울리는 동작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 (1) 쉬잇! ( )
- (2) 언제나 똑같은 소리…… ( )
- (3) 왜 밤낮 쓸데없는 소설책만 읽고 있지? ( )
- (4) 이리 와서 내 무릎에 앉아 봐. ( )

<보기> ① 방바닥에서 책을 집어들며 ② 성민을 가리키며  
③ 귀를 막으며 ④ 동생들을 보고 손가락을 입에 대며

3. 극본 ‘은정이네 저녁 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 (1) 이 극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 (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이 극본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기 어떻게릅니까?

- 아버지 —
- 어머니 —
- 큰 딸 —
- 작은딸 —
- 아 들 —

- (4) 이 극본에서 재미있는 말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 4. 어법

- (1) • ~ 이외에는 : except~

-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 참외씨 이외에는 심지 않았다.
- 낮 시간 이외에는 다니지 마십시오.
- 비타민 이외에는 먹지 않는다.

(2) • ~는 / 은데 : but

- 다른 것은 모두 참는데, 이것만은 참을 수 없어.
- 떠드는 것은 괜찮은데,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안 돼.
- 쉬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3) • ~만 : only

- 나만 방학 때 집에 있어요.
- 내 동생만 귀여워하세요.
- 짧은 치마만 입고 싶어요.
- 은희하고만 춤을 추고 싶었어요.

(4) • ~는지 : whether~ (or ~ not)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막연한 의문이나 느낌을 나타냄.]

-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심이 없구나!
- 잘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 저 사람은 시간이 늦었는지 뛰어가고 있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아버지 : 너희들은 언제나 같구나. 전화를 걸지 않으면 TV나 보고…….

미 영 : TV는 많은 정보를 주어요.

성 민 : 예, 그럼요.

미 영 : 그런데 아빠,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버지 : 가만있자…….

성 민 : 미영이 누나 생일은 8월 27일이에요.

아버지 : 나도 알고 있었어.

미 영 : 성민이 너, 왜 말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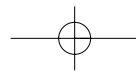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성 민 : 어차피 아시게 될 텐데, 너무 화내지 마.

### 2. 대치 연습

(1) 너희들은	언제나	같구나.
	항상	

(2)	TV는	많은	정보를	주어요.
	책은		상식을	
	부모님은		사랑을	
	친구는		우정을	

(3)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너무 화내지 마.
	늦었는데	
	못 갔는데	
	떨어졌는데	



### Ⅲ. 학습 문제

1. 다음 문장의 빈 곳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 (1) 두 꼬마가 \_\_\_\_\_ 나란히 하고 길을 건넜다.
- (2) 그 꼬마들은 \_\_\_\_\_ 함께 학교를 가기로 했다.
- (3) 그 때, 노인이 \_\_\_\_\_ 걸어가다가 잘못하여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 (4) 차들이 그 노인의 \_\_\_\_\_ 달려오고 있었다.
- (5) 그 노인은 \_\_\_\_\_ 을 만지며 주저앉았다.
- (6) 노인 가까이로 달려오던 차들이 \_\_\_\_\_ 멈추었다.
- (7) 막 달려오는 바람에 두 꼬마의 \_\_\_\_\_ 이 가방에서 빠져나왔다.
- (8) 두 꼬마는 무엇인가를 \_\_\_\_\_ 경찰관 아저씨들을 발견했다.
- (9) 그 경찰관들은 할아버지께 “\_\_\_\_\_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다.
- (10) 그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는지 \_\_\_\_\_ 을 못 하는 것 같았다.

<보기> • 내일부터 • 갈팡질팡 • 기억 • 어깨를  
 • 의논하는 • 방향으로 • 무릎 • 학용품  
 • 분명히 • 전부

2.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1) 극본 「은정이네 저녁 시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 ① 어머니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은정이

(2) 상대되는 뜻을 지닌 말끼리 잘 짝지어진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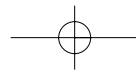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 ① 보고 싶지 않아 — 보기 싫어  
 ② 작은 소리 — 큰 소리  
 ③ 채널을 바꾸지 마 — 채널을 그냥 뒤  
 ④ 소설책 — 만화책

(3) 직업이 아닌 것은?

- ① 예술가      ② 변호사      ③ 소수 민족      ④ 의사

(4) 몸의 부분을 일컫는 말이 아닌 것은?

- ① 어깨      ② 방바닥      ③ 가슴      ④ 무릎





## 제 11 과 실용문

### I

#### 어떻게 읽을까

독서는 책을 읽음으로써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독자는 먼저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독자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쓰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쓴다. 글은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조직 및 제시 방법이 달라지므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필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

이 단원에 실린 네 편의 실용문은 글을 쓴 목적과 내용, 조직 및 제시 방법이 각각 다르다.

사전은 어떤 사실을 알기 쉽게 풀이한 글로서, 많은 어휘를 담고 있으며, 일정한 배열 순서를 지니고 객관적으로 해설한 글이다. 기사는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나 사실을 육하 원칙(5W1H)에 의거하여 기자가 보고 들은 대로 적은 글이다. 광고문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다 많이 팔기 위해 홍보하는 글로서,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한다. 안내문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 주거나, 물건의 사용법이나 유의점을 간단 명료하게 쓴 글이다.

사전을 찾아볼 때는 설명하려는 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신문 기사를 읽을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상품 광고문을 읽은 후에는 그 상품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문은 자신이 유의해야 할 점을 메모해 둔다.

글을 바르게 효과적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에 걸쳐 연습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면서 글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학습해 보자.

### 2

#### 사 전

민요 :

민요란 민중 속에 전승되어 온 노래이다. 대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을 할 때나 제례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 민중의 생활 감정을 반영하고, 때로는 국민성이나 민족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민요는 유행가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버이에게서 자식으로, 또한 자식에게서 손자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에 가사와 곡조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부르는 형식이 많은데, 흔히 후렴이 붙는다. 민요는 그 전파 속도와 세련미에 따라 토속 민요와 창 민요로 구분된다. 토속 민요는 어느 특정한 지방에서 불리는 것으로서, 사실이나 가락이 극히 소박하고 향토적인 반면, 창 민요는 흔히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하여 불리는, 세련되고 널리 전파된

민요이다. 일반적으로 민요라 하면 창 민요를 일컫는데, 창 민요는 지방에 따라 경기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동부 민요로 나뉜다.

신고산 타령

전래 민요

가을바 - 람 소슬하 - 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 - 요

귀뚜라 - 미-- 슬피울 어 고향 - 생 각 이 나 누 - 나

어 랑 어 랑 어 허야 에 헤 야 데 헤 야

그리운 내 고향 이 로 - 다

### 3

#### 광고문

○ ‘아리랑’의 뜻을 아십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인이면 누구나 부르는 노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책은 우리말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쓰게 하는 방법에 관

한 수필들로 꾸민 것입니다. 조금만 애정을 갖는다면 쉽게 살려 쓸 수 있는 아름다운 토박이 말들도 어원을 따져 재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즐거운 노래, 신나는 한국어

‘가, 나, 다’는 몰라도 서태지의 노래는 줄줄 외는 꼬마들……. 그 비밀은 바로 즐거움에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지겨운 한글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히 알게 되는 한국어!

이것이 바로 ‘신나는 한국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어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습니다.

## 4

### 안내문

○ 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장을 이용하실 때의 주의 사항

- 통장과 도장은 항상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통장에 비밀 번호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도장을 분실하셨을 때는 즉시 가까운 저희 은행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기 사

외국인 근로자 축제 한마당

—토요일 오후, 올림픽 공원에서—

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고향의 춤과 노래로 향수를 달래는 시간을 갖는다. 태평양·아시아 협회는 오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올림픽 공원에서 ‘제5회 외국인 근로자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각국의 민속 공연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글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점을 파악해야 합니까?

- 사전 : \_\_\_\_\_
- 기사 : \_\_\_\_\_
- 광고문 : \_\_\_\_\_
- 안내문 : \_\_\_\_\_

(2) 민요가 생겨나게 된 유래(origin)를 써 보세요.

---



---

(3) 본문에 나오는 두 편의 광고문에서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① \_\_\_\_\_
- ② \_\_\_\_\_

(4) 본문의 기사 내용을 육하 원칙(5W1H)에 따라 간추려 보세요.

- 누가 : \_\_\_\_\_
- 언제 : \_\_\_\_\_
- 어디서 : \_\_\_\_\_
- 무엇을 : \_\_\_\_\_

- 어떻게 : \_\_\_\_\_
- 왜 : \_\_\_\_\_

#### 2. 다음 말을 바르게 읽어 보세요.

- 낱낱의〔난나 〕
- 익는〔잉는〕
- 육하 원칙〔유카원칙〕
- 근로자〔글로자〕
- 명료〔명뇨〕
- 쌓아야〔싸아야〕
- 일컫는데〔일컫는데〕
- 목적〔목쩍〕

---

#### 3. 어법

- (1) • ~에 의거하여 / ~에 따라서 : on the ground of

- 신문 기사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쓴다.
-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이 뽑는다.
- 양심에 의거하여 행동하시오.

- (2) • ~(으)로, ~(으)로서 : as

- [신분(status)이나 자격(qualification)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서’는 ‘~(으)로’에 ‘서’가 붙어 그 뜻을 강조함.]
- 세종 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임금으로 유명하다.
  - 광고문은 상품을 선전하는 글로서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

- (3) • ~ㄴ/는 반면(에) : in contrast to~

- 이 물건은 값이 싸 반면에 질이 나쁘다.
- 토속 민요는 소박한 반면, 창 민요는 화려하다.

- (4) • ‘르’ 불규칙 활용 ( ‘르’ irregular conjugation)

[모음의 어미 앞에서 ‘르’이 덧생겨 ‘-르 러’, ‘-르 라’가 됨.]

- 요즘은 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 (오르 + 았 + 다)
-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흐르 + 어서)
- 나는 선생님의 생각과 약간 달라요. ( 다르 + 아요)
- 나는 친구의 이삿짐을 날라 주었다. (나르 + 아)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선희 : 실례합니다만, 서울 시청에 어떻게 가지요?

행인1 : 미안합니다만,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행인2 : 서울 시청이요? 이 길로 곧장 내려가다 보면, 지하철 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에서 내리세요.

### 2. 대치 연습

- (1) 깊이 생각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 열심히 노력하다

• 자꾸자꾸 먹다

• 담배를 계속 피우다

• 성공하게 된다.

• 살이 찌게 된다.

• 건강이 나빠진다.

- (2) 남에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을 익혀 봅시다.

• 실례합니다만,

• 죄송합니다만,

• 미안합니다만,

• 말씀 좀 여쭙 보겠습니다.

• 좀 도와 주시겠어요?

• 뭐 좀 물어 봐도 될까요?

### 3. 문답 연습

A : 실례합니다만, 국제교육진흥원이 어딿니까?

B : \_\_\_\_\_

(Sorry, but I'm not really sure myself.)

## Ⅲ. 연습 문제

1. 다음에 주어진 두 개의 문장을 ‘~다 보면’과 ‘~게 되다’를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고쳐 써 보세요.

<보기> 너무 일을 많이 하다. 저절로 병이 생긴다.

→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병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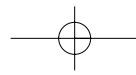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1) 그 사람을 자꾸 만나다. 저절로 정이 든다.

→ \_\_\_\_\_

- (2) 날마다 일기를 쓰다. 저절로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된다.

→ \_\_\_\_\_

- (3) 한국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저절로 한국말이 는다.



→

(4) 누군가를 사랑하다. 저절로 마음의 눈이 멀어진다.

→

2. <보기>와 같이 ( ) 안의 단어를 고쳐 써 보세요.

<보기> 우리는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불렀다. (← 좋다)

(1) 나는 배가 \_\_\_\_\_ 더 먹을 수 없다. (← 부르다)

(2) 그들은 생각이 서로 \_\_\_\_\_ 헤어졌다. (← 다르다)

(3) 이웃집 이삿짐을 \_\_\_\_\_ 주었다. (← 나르다)

3. 다음 문장의 ( ) 안에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써 보세요.

(1) 나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헌법( ) 행동한다.

(2) 나는 미국인인 ( ), 너는 한국인이다.

(3)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 우승을 함( ), 한국을 세계에 빛냈다.

(4) 미국에 살고 있는 김창준 씨는 한국계 미국인( )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

<보기> ~에 의거하여, ~(으)로서, ~(으)로써, ~반면

4. 다음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육하 원칙’(5W1H)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써 보세요.

서울 특별시는,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사업 중 하나로, 오는 10월 29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남산 자락에 타임 캡슐을 묻는다. 이것은 400년이 지난 2494년에 우리의 후손에 의해 개봉될 것인데, 이로써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누가 : \_\_\_\_\_ (2) 언 제 : \_\_\_\_\_

(3) 어디서 : \_\_\_\_\_ (4) 무엇을 : \_\_\_\_\_

(5) 어떻게 : \_\_\_\_\_ (6) 왜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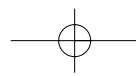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5.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의 ( )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봅시다.

A : 그 사람 한국말 잘 해요?

(~반면) → B : \_\_\_\_\_, 발음이 좋지 않아요.

A : 시청에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곤장) → B : \_\_\_\_\_





## ※ 보충 학습 자료

### ■ 아리랑(Arirang)

한국의 대표적인 구전 민요의 하나로, 어느 시대부터 발생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을 뿐 아니라, 일제의 암흑기를 통하여 한국 민족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었음. 지방에 따라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음.

아 리 랑

세마치 장단

아 리랑 - 아 리랑 - 아 라-- 리 - 요

아 리랑 - 고 - 개 - 로 - 념 어 간 다

나 를 버 리 고 가 사-는-님 - 은

십 리도 - 못 - 가 - 서 - 발 병 난 다

## 제 12 과 성공과 실패

### 1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한다. 성공한 사람은 박수와 갈채를 받지만, 실패한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밝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처음에는 성공 같지만 실패로 끝나는 일도 많고, 얼른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끝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 2

역사상 정말 위대하여 존경을 받는 인물 가운데에서, 살아 생전에 그들이 성공했다고 입을 모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근대 교육의 아버지’ 하면 으레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를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교육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의 일생은 성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뜻으로 펴낸 교과서는 당시 학교에서 사용해 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읽어 주지도 않아서 전혀 팔리지 않



## ※ 보충 학습 자료

### ■ 아리랑(Arirang)

한국의 대표적인 구전 민요의 하나로, 어느 시대부터 발생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을 뿐 아니라, 일제의 암흑기를 통하여 한국 민족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었음. 지방에 따라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음.

아 리 랑

세마치 장단

아 리랑 - 아 리랑 - 아 라-- 리 - 요 - - -

아 리랑 - 고 - 개 - 로 - 념 어 간 다

나 를 버 리 고 가 사-는-님 - 은 - - -

십 리도 - 못 - 가 - 서 - 발 병 난 다

## 제 12 과 성공과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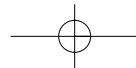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1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한다. 성공한 사람은 박수와 갈채를 받지만, 실패한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밝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처음에는 성공 같지만 실패로 끝나는 일도 많고, 얼른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끝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 2

역사상 정말 위대하여 존경을 받는 인물 가운데에서, 살아 생전에 그들이 성공했다고 입을 모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근대 교육의 아버지’ 하면 으레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를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교육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의 일생은 성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뜻으로 펴낸 교과서는 당시 학교에서 사용해 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읽어 주지도 않아서 전혀 팔리지 않



았다. 불쌍한 고아들을 모아 고아원을 운영하면 번번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페스탈로치보다 뛰어난 교육자가 누구인가!

사람의 눈에는 비록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는 성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 두 번의 실패로 실망하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일곱 번 쓰러졌다가 여덟 번째에 다시 일어날 용기만 지녔다면, 실패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 3

실패를 전혀 모르고 성공을 거듭한 사람은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약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약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고 너그럽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들이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대는 폭이 넓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김동길〉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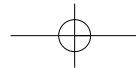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 본문을 읽고, 다음 문장의 밑줄 친 곳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보세요.
  -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밝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_\_\_\_\_.
  -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 사람은 \_\_\_\_\_이다.
  - 일곱 번 쓰러졌다가 여덟 번째에 다시 일어날 \_\_\_\_\_만 지녔다면, 실패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고 너그럽게 만드는 \_\_\_\_\_을(를) 지녔다.
  -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_\_\_\_\_하면, 폭이 넓고 \_\_\_\_\_이 있는 \_\_\_\_\_을 살 수 있다.

### 2. 어법

- ~기(게) 마련이다 : It is sure that ~

[ ‘당연히 ~(게) 된다’ 는 뜻을 나타냄.]

•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기 마련이다.



- 게으르면 가난하게 마련이다.
- 페스탈로치를 예로 들기 마련이다.
- 비밀은 새어 나가게 마련이다.

- (2) • 전혀(조금도) ~지 않다 : do not ~ at all

[‘전혀’와 ‘조금도’는 부정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연결)함.]

- 전혀 책이 팔리지 않는다.
- 전혀 밥을 먹지 않았다.
- 조금도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다.

cf. 시험 공부를 조금 하였다.

- (3) • ~보다~(하)다 : more than / ~er than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서, 비교한 결과의 차이점을 나타냄.]

- 열 사람이 다섯 사람보다 많다.
- 지구가 달보다 크다.
- 이것이 저것보다 더 짧다.

- (4) • ~처럼 : like, as

- 지구가 달처럼 둥글다.
- 이것이 저것처럼 짧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준영 : 우표는 몇 번 창구에서 취급합니까?

안내 : 2 번 창구입니다.

준영 : 이 편지를 미국으로 보내는 데 얼마인가요?

직원 : 330 원입니다.

준영 : 잔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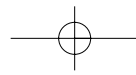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직원 : 만 원짜리를 내시면 거스름돈을 드릴게요.

### 2. 대치 연습

(1)	전화 카드	는/은 몇 번 창구에서 취급합니까?
	우표	
	우편 엽서	
	송금	

(2)	오십 원	짜리 동전 없습니까?
	백 원	
	오백 원	

(2)	만 원짜리를 주시면	거슬러	드리지요.
		바꾸어	



### 3. 문답 연습

(우체국에서)

직원 : 어서 오세요.

순희 : 미안합니다만, 외국에 보내는 소포는 어느 창구에서 취급합니까?

직원 : 이리 주세요. 무게가 1.2kg이군요. 요금이 6,500원입니다. 여기에 성함과 주소를 써 주십시오.

순희 : 잔돈이 없군요. 만 원짜리인데요.

직원 : 괜찮습니다. 여기 거스름돈 3,500원입니다.

순희 : 뉴욕까지 며칠 걸릴까요?

직원 : 약 1주일이면 배달이 됩니다.

순희 : 우표와 우편 엽서는 몇 번 창구에서 팝니까?

직원 : 네, 2번 창구입니다.

순희 : 감사합니다.

### Ⅲ. 학습 문제

1. 다음 글에 ‘조금’ 과 ‘조금도’ 를 구별하여 써 넣으세요.

- (1) 책이 \_\_\_\_\_ 팔리지 않는다.
- (2) 책이 \_\_\_\_\_ 팔리었다.
- (3) 시험 공부를 \_\_\_\_\_ 하였다.
- (4) 밥을 \_\_\_\_\_ 먹지 않았다.

2. 다음 글에 ‘~처럼’과 ‘~보다’를 구별하여 써 넣으세요.

- (1) 지구가 달 \_\_\_\_\_ 4배나 크다.
- (2) 지구가 달 \_\_\_\_\_ 둥글다.
- (3) 페스탈로치 \_\_\_\_\_ 더 뛰어난 교육자가 누구인가!
- (4) 네 얼굴이 사과 \_\_\_\_\_ 예쁘구나!

3.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 ) 안에서 골라 보세요.

- (1) 실패가 끝내는 성공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 (2) 성공했다고 (입을, 손을) 모아 칭찬했다.
- (3) ‘근세 교육의 아버지’하면 (간혹, 으레) 페스탈로치를 들게 마련이다.
- (4) 실패를 (전혀, 마땅히) 모르고 성공을 거듭한 사람은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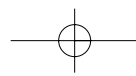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 ※ 보충 학습 자료

■ 페스탈로치(Pestalozzi, Johann Heiarich : 1746~1827)

스위스의 교육가. 인간성의 도야와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저서에 「은자의 황혼」, 「스탄스(stans) 소식」 등이 있음.

■ 김동길(1928~ )

수필가, 철학자, 정치가. 수상집에 「길은 우리 앞에 있다」, 「하늘을 우러러」, 「역사의 언덕」 등이 있음.



## 제 13 과 좋은 글을 쓰려면

### 1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들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주제와 알맞은 글감이 필요하다. 또한, 훌륭한 집이 완성되려면 그 이전에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좋은 글을 쓰려면 글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준비된 글감을 주제와 목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개요 작성하기’라 한다.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 제목을 정한다.
- 글의 형식을 처음, 중간, 끝으로 짠다.
-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간추려 본다.

### 2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의사라는 직업은 더욱 그렇다.

의사라는 직업이 귀중한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과 아픈 환자의 상담자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에서, 누구든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였던 슈바이처는 일찍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좋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사는 생명의 수호자인 동시에, 목사나 교사처럼 이웃의 스승이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윗글에 대한 개요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제목	의사(직업)
주제	의사는 생명의 수호자요, 이웃의 스승이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처음	의사라는 직업에는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다.
중간	(1) 돈을 벌 목적만으로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슈바이처는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좋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의사는 생명의 수호자요, 이웃의 스승이요, 친구가 되어야 한다.

### 3

선생님 :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요?

학 생 : 첫째, 진실하고 알찬 내용. 둘째,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 셋째, 조리 있고 짜임새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 그럼, 좋은 글을 쓰는 비결은 뭘까요?

학 생 : 우선, 책을 많이 읽어 간접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꾸준히 써 봄으로써 사고력과 문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용화 : 수정아, 너 ‘소나기’란 단편 소설 읽었어?

수정 : 황순원 선생님이 쓰신 것?

중학교 때 이미 읽었지. 용화, 넌 읽었니?

용화 : 응, 어젯밤에 읽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 그런데 넌 그 소설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

수정 : 읽은 지 오래 됐지만, 나도 무척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 한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와의 맑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야.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_\_\_\_\_

(2)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_\_\_\_

(3) 준비된 글감들을 주제와 목적에 맞게 구성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합니까?

\_\_\_\_\_

(4) 본문 3의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① \_\_\_\_\_

② \_\_\_\_\_

2. 다음 말을 바르게 읽어 보세요.

· 짓기〔질끼〕 · 맞게〔맏께〕 · 밥과〔밥파〕 · 앞도〔입또〕

· 글감〔글깁〕 · 궁금중〔궁금쫙〕 · 일중〔일쫙〕



### 3. 어법

- (1) • ~기 위해서 : in order to ~
- 나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 학교에 다닌다.
  - 좋은 글을 짓기 위해서는 글감이 좋아야 한다.
- (2) • ~에 관한, ~에 대한 : regarding ~, about
- ‘소나기’란 소설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이다.
  -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감과 관련된 생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한 개요가 필요하다.
- (3) • ~(으)ㄴ 때마다 : whenever ~
- 뽀꾸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난다.
- (4) • ‘ㅎ’ 불규칙 활용( ‘ㅎ’ irregular conjugation)
- [ ‘ㄴ, ㄹ, ㅁ’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형용사 어간의 ‘ㅎ’이 탈락함.]

	ㄴ	ㄹ	ㅁ
하얗다	하얀	하얄까	하야면
노랗다	노란	노랄까	노라면
까맣다	까만	까말까	까마면
그렇다	그런	그릴까	그러면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고속 도로에서 과속을 한 차를 교통 경찰이 세웠다.  
교통 경찰 : 실례합니다만, 운전 면허증 좀 보여 주실까요?  
운 전 자 : 그러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교통 경찰 : 과속입니다. 설마 이곳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 2. 대치 연습

설마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	↑
화가	난 건
나를	모른 채하는 건
시험에	떨어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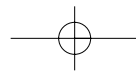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3. 문답 연습

A : 야, 영수야! 슈퍼 볼 표를 구했어.

B : \_\_\_\_\_  
(Don't tell me you are going alone.)

A : 이미 내 여자 친구하고 가기로 약속했는 걸.

B : \_\_\_\_\_  
(That's the last thing I expected.)



### Ⅲ. 연습 문제

1. 다음 문장에 ‘~기 위해서’를 넣어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보기〉 나는 여기에 왔다. 너를 만난다.  
→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 (1) 나는 돈을 모았다. 여행을 가다.

→

- (2) 한국은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경제 발전을 이루다.

→

- (3) 부모님은 애를 쓰셨다. 우리를 올바르게 키우다.

→

2. ‘~에 관한’을 넣어 〈보기〉와 같이 고쳐 써 보세요.

〈보기〉 나는 책을 쓴다. (너)  
→ 나는 너에 관한 책을 썼다.

- (1) 그 작곡가는 노래를 작곡했다. (세계 평화)

→

- (2) 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의 세계)

→

- (3) 어른들은 불만이 많다. (요즘 아이들의 가벼운 행동)

→

3. 〈보기〉와 같이 ( ) 안의 낱말을 알맞게 고쳐 □ 안에 써 보세요.

〈보기〉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까만 색이다. (← 까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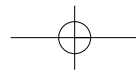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 (1) 백합은 □ 색의 꽃이 핀다. (← 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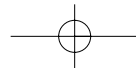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2) 개나리꽃은 □□ 색이다. (← 노랗다)

- (3) 바닷물은 □□ 색이고, 하늘도 □□ 색이다. (← 파랗다)

4. 서로 잘 어울리는 문장이 되도록 왼쪽과 오른쪽의 말을 이어 보세요.

- |                      |   |               |
|----------------------|---|---------------|
| (1)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 • | • 설계도가 필요하다.  |
| (2)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 • | • 지금도 기억이 난다. |
| (3) 철학(philosophy)이란 | • | • 삶에 관한 학문이다. |
| (4) 좋은 집을 지으려면       | • | • 현실에 충실하자.   |
| (5) 읽은 지 오래 됐지만      | • | • 가슴이 벅차다.    |





5. ( ) 안의 말을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보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개요표가 필요하다.  
(← 개요표)

- (1) 의사라는 직업에는 \_\_\_\_\_.(← 특별한 뜻)
- (2) 으악새에 대한 \_\_\_\_\_.(← 궁금증)
- (3) 그 소설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_\_\_\_\_.(← 머릿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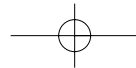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6. 다음 말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 보세요.

- (1) ~기 위해서 : \_\_\_\_\_
- (2) ~(으)ㄴ 때마다 : \_\_\_\_\_

### ※ 보충 학습 자료

■ 보조 동사(Auxiliary Verbs) : 자립성이 없거나 약하여 본동사에 기대어 쓰이는 동사

- (1) 부정(negation) : ~지 않다. (못하다)
  - 나는 김치를 먹지 않는다. (~지 못한다)
- (2) 사동(causative) : ~게 하다. (만들다)
  - 내 동생은 가끔씩 나를 화나게 한다. (~게 만든다)
- (3) 피동(passive) : ~아/어 지다, ~아/어지게 되다.



-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 (~좋아지게 되었다)

(4) 진행(continuation) : ~아/어 가다. (오다)

- 그 일은 잘 되어 간다. 어제부터 해 오는 중이다.

(5) 종결(completion) : ~아/어 내다. (버리다), ~고 말다.

- 나는 결국 그 일을 해 내었다.
- 나는 영미와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 윤희는 너무 슬퍼서 울고 말았다.

(6) 봉사(service) : ~아/어 주다. (드리다)

- 나는 가끔 동생을 도와 준다. 할머니를 도와 드리다.

(7) 시행(attempt) : ~아/어 보다.

- 이 옷을 입어 보세요.
- 나는 배를 처음 타 보았다.

(8) 반복(repetition) : ~아/어 대다.

- 아침부터 까치가 울어 댄다.
- 아이가 계속 발을 굴러 댄다.

(9) 보유(holding) : ~아/어 두다. (놓다)

- 거기에 놓아 두세요. 제가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 제 14 과 약 손



I

여섯 살 된 막내딸이 밖에서 장난을 하다가,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울면서 들어왔다.

아이들에게는 제 아버지라도 의사라고 하면 무서운 모양인가 보다.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마고 아무리 달래도, 혹

시 주사라도 놓을까 보아서 그런지, 한층 더 큰 소리를 내어 울면서 할머니에게로 달아나 버린다.

할머니는 손녀를 품에 안으시고는 아픈 눈을 살며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장가처럼 혼잣말로 옛날 민요를 중얼거리시는 것이었다.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물에 빠지면 내가 살려 줄 터이니, 우리 아기 눈에 있는 티 좀 꺼내어 다오.”

손녀는 어느 새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의 품에서 잠이 들어 버린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연세가 여든을 넘으셔서 늙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의사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큰 힘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2

옛날에 우리 집은 무척 가난하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병이 들어도 약을 써 보지 못하고 자라났다.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눕게 되면, 어머니는 약 대신에 언제나 그 머리맡에 앉으셔서 “내 손은 약손이다.”를 외시면서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나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불렀다.

### 3

나는 문득 내 손을 펴 보았다. 진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쿡 찔렀다. 현대의 약손이라고 말하는 의사의 손이다. 그러나 미끈하고 차가운 내 손에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 것만 같았다.

어린 손녀의 아픈 눈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머니의 손에서 슈바이처보다 더 뜨겁고 진한 사랑과 정성을 새삼스레 마음 속 가득히 느꼈다. 그리고 늙은 나무 껍질 같은 어머니의 손이 오늘따라 자꾸만 모나리자의 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박문하〉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1) 지은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2)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 (3) 다음의 빈 곳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보세요.

- ①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니의 손에서, 의사인 내 손에 없는 뜨겁고 진한 \_\_\_\_\_과 \_\_\_\_\_을 느꼈다.
- ② 우리가 병으로 눕게 되면, 어머니는 따뜻한 손길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셔서 병을 낫게 해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어머니의 손을 \_\_\_\_\_이라고 불렀다.

2. 어법

- (1) • ~(라)고

[인용을 나타낼 때 사용함.]

[ (A) : “눈에 티가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B) : 울면서 들어왔다.

→ (A) + (B) : 눈에 티가 들어갔다(라)고 (말하며) 울면서 들어왔다.

〔(A) :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마”(라)고 말했다.  
 (B) : (아이를) 달랬다.

→ (A) + (B) :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마(라)고 (말하며) 달랬다.

(2) • ~(아/어)버리다.

〔‘완전히 ~하다’의 뜻을 가진 보조 용언임.〕

- 할머니에게로 달아나버리다.
- 할머니의 품에서 잠이 들어버리다.
- 물건을 잃어버렸다.

cf. 쓰레기를 버리다. (본용언)

(3) • ~(아/어) 보다.

〔‘시험삼아 한번 ~를(을) 하다.’의 뜻을 가진 보조 용언임.〕

- 약을 써 보지 못했다.
- 책을 읽어 보자.

cf. 영화를 보다. (본용언)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1)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2) 저 육교를 건너 오른쪽에 있습니다.

(3) 어디가 아프십니까?

(4) 배가 아프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 2. 대치 연습

(1)	여기	(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	은(는) 어디 있어요?
	학교		식당	
	호텔		지하철역	
	교회		경찰서	
			공중 전화	

(2) 저	지하도	를 건너면	오른편	에 있습니다.
	횡단 보도		왼편	
	육교		맞은편	

(3)	머리	가(이)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배		열이 납니다.
	이		구역질이 납니다.
	눈		

### 3. 문답

(병원에서)

의사 : 어디가 아프십니까?

환자 : 머리가 아프고, 식욕이 없어요.



의사 : 옷을 벗고, 여기에 앉으세요.  
환자 : 소화도 잘 되지 않아요.  
(진찰을 한 후)  
의사 : 감기군요. 요즈음 감기는 열도 나고, 배탈도 나지요.  
약을 드릴 테니 식사 후 삼십 분마다 드십시오.  
환자 : 곧 나올까요?  
의사 : 안심하십시오. 며칠 간 쉬면 나올 것입니다.  
환자 : 그렇습니까? 외출은 해도 괜찮을까요?  
의사 : 외출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 몸조심하세요.

### Ⅲ. 학습 문제

1. 다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보기>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병원에 갔다.  
→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병원에 갔다.

(1) “옷을 사러 간다.”고 말했다. 백화점에 갔다.

→ 옷을 사러 \_\_\_\_\_

(2)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공원에 갔다.

→ 친구를 만나러 \_\_\_\_\_

2. 밑줄 그은 곳에 “보았다” 또는 “버렸다”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써 넣으세요.

(1) 책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찾을 수 없다.

→ 책을 잃어 \_\_\_\_\_

(2) 그는 운동장에 갔다. 그래서 지금 만날 수 없다.

→ 그는 운동장에 가 \_\_\_\_\_

(3) 맛이 있는지, 빵을 시험삼아 먹었다.

→ 맛이 있는지, 빵을 먹어 \_\_\_\_\_

(4) 버스를 놓쳤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탈 수 없다.

→ 버스를 놓쳐 \_\_\_\_\_

(5) 내용이 어떤지, 책을 대강 읽었다.

→ 내용이 어떤지, 책을 대강 읽어 \_\_\_\_\_

3. 다음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1) \_\_\_\_\_ 더 큰 소리를 내다.

(2) 아픈 눈을 \_\_\_\_\_ 어루만져 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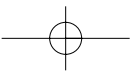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3) 소독약 냄새가 코를 \_\_\_\_\_ 찔렀다.

(4) 사랑이 마음 속 \_\_\_\_\_ 느껴졌다.

<보기> 살며시, 가득히, 쿡, 한층

4. 다음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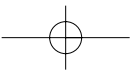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 [막내-] : 막내딸 — 막내아들 — 막내손녀



- [큰-] : 큰딸 — 큰아들 — 큰손녀 — 큰아버지

※ 보충 학습 자료

- 슈바이처(Schweitzer, Albert : 1875~1965)
  - 독일계 프랑스 신학자, 철학자, 의사, 음악가
  -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위해 의료 봉사에 전념함. 노벨 평화상을 받음 (1952년).
- 모나리자(Mona Lisa)
  -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부인상(1500년경).
- 박문하(1917~1975)
  - 수필가, 의사. 호는 우하
  - 저서 : 「약속」, 「씨 뿌리는 사람들」, 「낙서 인생」 등



## 제 15 과 말의 영향력

### Ⅰ

#### 도장이 된 말

도장이란 편리한 것이다. 고무, 나무, 상아, 수정 등으로 만드는 도장은 개인의 교양, 취미, 용도에 따라 형태나 글씨체, 크기가 다르다. 그러나 이 도장이 쓰일 때는 이 곳의 서명처럼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거나, 같은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 수고를 덜기 위한 경우이다.

나는 가끔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에도 도장 역할을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 인사말, 감사하는 말 등 제각기 습관화되어 익숙하게 쓰이는 말이 따로 있다. 그것은 마치 각 개인 전용인 말의 도장 같은 것이다. 비슷한 경우를 당하거나,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는 특별한 용어를 선택하여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가지고 있는 도장 중에서 어떤 하나를 냉큼 찍는 것이다. ‘잘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등등. 이것은 마치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무게나 종류에 따라 ‘등기’, ‘속달’, ‘항공’의 도장을 찍는 작업과 같다.

그래서 이 말의 도장들은 가능한 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애매한 표현이 많이 쓰인다. 대부분이

말하기 좋고, 듣기 좋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들이다. 따라서, 때와 장소에 꼭 맞아야 하는 말의 개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은 이미 기계화,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매끈하면서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 2

### 태풍 이름이 바뀌었다

그 동안 태풍의 사나운 위력을 달래려고 여성의 이름으로 지어 불러 온 사실은 생각 자체가 썩 재미있다. 그러던 것이 세계 여성들의 끈질긴 반대로 앞으로는 공평하게 여성 이름과 남성 이름을 교대로 지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 재미있다. 살벌한 뉴스 끝에 보도된 어느 날의 이 소식은 산뜻한 여운을 남겼다.

이런 일을 한낱 부질없는 언어의 장난이라고 피식 웃어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뜻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언뜻 보면 서로 엇갈린 주장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점을 놓칠 수 없다. 결국, 말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됨을 염려하는 것이다.

한 여자 친구가 어떤 동화책 속에 나오는 ‘He’를 모조리 ‘She’로 바꿔 놓았다. 그녀는, ‘He’가 주인공인 이야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자연히 남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녀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남녀가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 말한 것처럼, 말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다음의 빈 곳에 본문 ㉠ ‘도장이 된 말’의 내용과 맞으면 ‘T’, 맞지 않으면 ‘F’를 쓰세요.

- \_\_\_\_\_ (1) 글쓴이의 친구는 판에 박힌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 \_\_\_\_\_ (2) 도장은 개인의 교양, 취미, 용도에 상관 없이 똑같다.
- \_\_\_\_\_ (3) 인사말, 감사하는 말은 습관화되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을 때가 많다.
- \_\_\_\_\_ (4) 도장과 같은 말들은 대부분 말하고 듣고 쓰기가 어렵다.

2. 다음에서 자연스럽게 읽혀지도록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 보세요.

- |                         |   |                              |
|-------------------------|---|------------------------------|
| (1) 도장이란                | • | • 같은 말이 반복되는 수고를 덜기 위한 경우이다. |
| (2) 도장과 같은 말이 쓰일 때는     | • | • 편리한 것이다.                   |
| (3) 말의 도장들은 폭 넓게 쓸 수 있게 | • | • 말의 개성이 부족하다.               |
| (4) 적기 적소에 꼭맞아야 하는      | • | • 애매한 표현이 많다.                |

3. 다음의 빈 곳에 본문 ㉡ ‘태풍 이름이 바뀌었다’의 내용과 맞는 문장에는 ‘T’, 맞지 않는 문장에는 ‘F’를 쓰세요.

- \_\_\_\_\_ (1) 말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될 때도 있다.
- \_\_\_\_\_ (2) 어린이들에게 고정된 사고 방식을 강요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 \_\_\_\_\_ (3) 어린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앞날을 선택할 수 없다.
- \_\_\_\_\_ (4) 남녀는 서로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 \_\_\_\_\_ (5) 주위 환경이나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4. 어법

- (1) • ~(ㄹ) 때마다 : (always) whenever
-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다.
  - 공부를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 잠잘 때마다 꿈을 꾸다.

- (2) • ~듯(이) / ~것처럼 : like
- 노래부르듯 아름답게 말을 했다.
  - 춤을 추듯 걸어갔다.
  - 화가 난 듯 얼굴을 붉혔다.
  -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 (3) • ~에도 : also

[ ‘또한’의 뜻을 나타냄.]

- 겨울에도 비가 올 때가 있다.
- 음식에도 독이 있다.

- (4) • ~등 : and so on, etc.

[몇 가지 예를 들고, 나머지는 생략할 때 쓰임.]

- 인사말, 감사하는 말 등 익숙한 것이 따로 있다.
- 사과, 배, 딸기 등은 과일이다.
- 제주도의 특색은 말, 굴, 해녀 등이다.

- (5) • ~버릴 수도 있지만 : but

[앞 문장이나 단어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올 때 쓰임.]

-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
- 먹어버릴 수도 있지만, 먹지 않겠다.
-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대로 놓아 두겠다.

- (6) • 예를 들면 : for example

- 예를 들면, 먹고 자고 노는 것이다.
- 예를 들면, 방 청소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숙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다.

- (7) • 더 이상 : anymore

[주로 부정형으로 쓰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 더 이상 먹으면 배탈이 난다.

- 더 이상 놀다가는 대학에 못 갈지도 모른다.
- 더 이상 말하는 것은 헛수고야.

- (8) • 자연히 / 저절로 : naturally

- 계속 돌리면 자연히 열릴 거예요.
- 자꾸 때리면 자연히 화를 내지요.
- 너무 오랫동안 일하면 자연히 힘이 들어요.
- 자연히 넘어가게 건드리지 마세요.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뷔키 : 동화책에 나오는 ‘He’를 전부 ‘She’로 바꿔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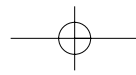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선생1 : 왜요?

뷔키 : ‘He’가 주인공인 이야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He’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선생2 : 그렇지만 소년을 어떻게 ‘She’라고 하죠?

뷔키 : ‘소년’이라고 하지 말고 ‘한 아이’라고 쓰면 되죠.





## 2. 대치 연습

(1)	He	를	She	로 바꿔야 해요.
	‘이’		‘가’	
	‘먹는다’		‘먹었다’	
	‘읍니다’		‘습니다’	

(2) 그렇지만	‘소년’	을(를) 어떻게	‘She’	(이)라고 하죠?
	사과		배	
	말		발	
	우리		그들	

(3)	‘He’	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기	
	먹는 것	
	노는 것	

## Ⅲ. 학습 문제

### 1. 나머지 셋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1) 고무	나무	책	상아
(2) 취미	낚시	독서	숟가락
(3) 꽃	항상	언제나	가끔
(4) 스탬프	서명	도장	그림

(5) 머리가 많이 아파요. 천만에요.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6) 우체국 등기 항공 소포

(7) 기성복 맞춤옷 수공예품 가정 요리

### 2.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보기>에서 맞는 말을 골라 써 보세요.

<보기>   • 주장   • 동료   • 잠잠히   • 마시듯  
              • 결코   • 조화   • 주위 환경   • 동의  
              • 편견을   • 중립적인

(1) 남의 말을 들을 때는 \_\_\_\_\_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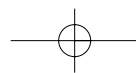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2) 자기 \_\_\_\_\_만 내세우지 말고 내 말도 들어 보세요.

(3) 술을 물 \_\_\_\_\_하면 몸이 나빠져요.

(4) 사람과 동물들이 \_\_\_\_\_를 이루며 살아요.

(5) 내 말에 \_\_\_\_\_하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6)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_\_\_\_\_ 앉아 있었다.



## 제 16 과 이수진에게



수진, 그 동안 잘 있었어요?

뜻하지 않은 수진의 편지를 받고 기뻐서 곧 답장을 쓰고 있어요.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방학 동안 수진이가 캔디 스토어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그게 정말이었네요. 그 지역은 험하기로 소문이 난 곳인데 수진이의 대담함에 놀랐어요.

부디 용기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학생이면서 판매원이라는 아주 힘든 1인 2역의 여름을 잘 보내도록 하세요.

수진이가 직장을 통해 보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무더운 날씨와 함께 불쾌 지수를 높여 주고 있어요. 그 곳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고, 담배 꾹초와 맥주병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린다고요. 또,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니까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그들이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들을 탓하는 수진이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청소년들이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자유’는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고, 그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또한, 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결코 남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지요.

수진의 편지는 내게도 새로운 일거리를 주었어요. 생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것은 청소년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요.

내가 수진이보다 2년 선배라고 해서 금방 이런 큰 문제

의 답을 줄 수 있겠어요?

9월이 오면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그 때까지 안녕.

7월 17일

선배 김철호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1. 본문 ‘이수진에게’를 읽고, 다음 내용 중에서 맞는 것에 V표를 하세요.

\_\_\_\_\_ (1) 수진이가 철호에게 편지를 보냈고, 철호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화가 났다.

\_\_\_\_\_ (2) 수진이는 위험한 장소에 있는 캔디 스토어에서 일을 한다. 그러다가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과 싸움을 했다.

\_\_\_\_\_ (3) 수진이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철호도 수진이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_\_\_\_\_ (4) 누구나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 침범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방해해도 좋다.

### 2. 어법

(1) • ~고 전해 들었는데

• 네가 미국으로 갔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니었구나.

- 몸이 많이 아프다고 전해 들었는데, 역시 그렇구나.
- 뉴욕의 겨울 날씨가 서울보다 따뜻하다고 전해 들었는데, 역시 맞구나.

(2) • ~음에도(~라는 사실에도)

-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뛰었음에도 끌리는 하지 않았다.
-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좋지 않았다.

(3) • ~(을/를) 탓하다 (= 비난하다)  
~(의)탓이다 (= 잘못이다)

- 내가 나쁜 성적을 받았다고 선생님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둘이 같이 사탕을 먹고서 동생만 탓한 것은 나쁘다.
- 내 얼굴이 미운 것은 어머니의 탓이라고 불평을 했다.
- 방종은 무책임의 탓이다.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선생님 : 자유는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학 생 :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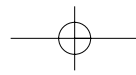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선생님 : 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결코 남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 2. 대치 연습

(1)	자유는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다.
	예술은	
	물은	
	공기는	

(2)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인지	
	내용인지	
	영문인지	

(3) 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영토를	
	가옥을	
	권리를	



### Ⅲ. 학습 문제

1.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 보세요.

- |                             |   |   |                         |
|-----------------------------|---|---|-------------------------|
| (1) 수진이가 보고 있는<br>청소년들의 문제는 | • | • | 남의 자유를 침범해서<br>는 안 되지요. |
| (2) 자신의 자유를 위<br>해서 결코      | • | • | 주인공이 되니까요.              |
| (3) 청소년인 우리들이<br>다음 세대의     | • | • | 불쾌 지수를 높혀 주<br>고 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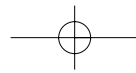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곳에 맞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 (1) 영민이의 \_\_\_\_\_에 나는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 (2) 남의 말을 \_\_\_\_\_ 하지 말아야 한다.
- (3) \_\_\_\_\_ 은 어려운 학문이다.
- (4) 천둥과 번개가 쳐, 수진이가 \_\_\_\_\_에 떨고 있다.
- (5) 국가에 \_\_\_\_\_ 한 사람에게 훈장을 준다.
- (6) 한 문제를 여러 \_\_\_\_\_ 보아야 한다.

〈보기〉	• 대담함	• 불안감	• 각도에서
	• 함부로	• 철학	• 공헌

3. 본문을 읽고, 맞는 답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 (1) 일인 이역이란?
  - ①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 ② 두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 (2) 험하기로 소문난 장소는?
  - ① 위험하고 악명이 높은 곳이다.
  - ②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다.
- (3) ‘용기가 지나치지 않도록 해라.’의 뜻은?
  - ①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해라.
  - ② 안전을 생각하면서 일해라.
- (4) 맥주 병을 함부로 던진다는 말의 뜻은?
  - 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 ②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다.



## 제 17 과 한국어의 음운 변동

### 1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을 연이어 발음할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꽃’이라는 말에서 ‘ㄷ’ 받침은 단독으로 발음할 때에는 ‘꽃’ → [꼇]과 같이 ‘ㄷ’이 ‘ㄷ’으로 발음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과 만나면 ‘꽃이’ → [꼬치]와 같이 ‘ㄷ’으로 소리난다. 한편 ‘ㄱ’이나 ‘ㄴ’과 만나면 ‘꽃만’ → [꼇만], ‘꽃나무’ → [꼇나무]와 같이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 2

음운의 변동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올바른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변동 규칙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단위에서는 음운이 연이어 소리날 때, 어떤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끝소리(받침)의 발음 규칙

1) 다음 <보기>의 단어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받침 소리가 어떻게 소리나는지 알아보자.

- <보기>
- 책, 밖, 부엌 → ‘ㄱ, ㅋ’이 [ㄱ]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낫, 낮, 낯, 날 → ‘ㄷ, ㅌ, ㄷ, ㅌ’은 [ㄷ]으로 바뀌어 소리난다.
  - 입, 잎 → ‘ㅍ’이 [ㅍ]으로 소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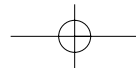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음절의 끝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뿐이다. 이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받침)이 끝소리로 오게 되면 그것은 <보기>와 같이 ‘ㄱ, ㄷ, ㅍ’으로 바뀌어 모두가 일곱 소리 중의 어느 하나로 소리나게 된다.

2) 다음을 하나 하나 발음해 보자.

- (1) 웃어른 → [우더른], 젓어미 → [저더미],  
겉옷 → [거돋]
- (2) 웃이 → [오시], 젓으로 → [저즈로],  
겉으로 → [거트로]

한 단어의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다음에 오





면 위의 (1)과 (2)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발음된다. (2)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로서 받침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고, (1)의 경우는 자립성이 있는 단어가 연결되는 경우로서 일곱 자음 소리 중의 하나로 바뀌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 2. 자음 동화

단어에서 자음과 자음이 이어 소리날 때, 그 소리의 변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국물 → [궁물], 닫는 → [단는], 윗물 → [원물], 입는 → [임는], 밥물 → [밤물]

- ㄱ(ㄱ, ㅋ) + ㄴ, ㅁ → ㅇ
- ㄷ(ㄷ, ㅌ, ㅊ, ㅍ, ㅍ, ㅍ) + ㄴ, ㅁ → ㄴ
- ㅂ(ㅂ) + ㄴ, ㅁ → ㅁ

2) 국력 → [궁녁], 몇 리 → [면니], 급류 → [금뉴]

- ㄱ + ㄹ → ㅇ + ㄴ
- ㄷ + ㄹ → ㄴ + ㄴ
- ㅂ + ㄹ → ㅁ + ㄴ

3) 담력 → [담녁], 종로 → [종노]

- ㅁ + ㄹ → ㅁ + ㄴ
- ㅇ + ㄹ → ㅇ + ㄴ

4) 찰나 → [찰라], 난로 → [날로]

- ㄷ + ㄴ → ㄷ + ㄹ
- ㄴ + ㄷ → ㄷ + ㄹ

음절의 끝소리가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소리가 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모두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자음 동화라 한다.

## 3. 구개음화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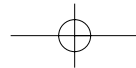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1) 굳이 → [구지], 해돋이 → [해도지],  
미달이 → [미다지]

(2) 같이 → [가치], 끝이 → [꼬치], 밭이 → [바치]

‘ㅣ’ 모음 앞에서 ‘ㄷ, ㅌ’은 각각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음운 변동을 구개음화라 한다.

## 4. 모음 조화

한국어에서는 ‘ㅏ, ㅗ’를 양성 모음, ‘ㅓ, ㅜ, ㅡ’를 음성 모음, ‘ㅣ’를 중성 모음이라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



리는 현상이 있다. 용언의 어간이 양성 모음이면 <보기>와 같이 양성 모음의 어미가 오고, 어간이 음성 모음이면 음성 모음의 어미가 붙는다.

<보기>    • 막 + 아,    아서,    았  
              • 먹 + 어,    어서,    었

## 5. 된소리 되기

단어에서 두 개의 무성음이 서로 만나면 뒤의 소리가 <보기>와 같이 된소리로 바뀐다.

<보기>   약국 → [약꺠],    밥상 → [밥쌍]  
              걷다 → [걷따],    먹고 → [먹꼬]  
              앞길 → [압꺠],    젓소 → [ 쏘]

## 학 습 활 동

### I. 내용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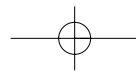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다음 단어의 받침 소리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보기>    낫 → [난],    밭 → [반]

(1) 꽃    → [            ]	밑    → [            ]
젓    → [            ]	옷    → [            ]
(2) 앞    → [            ]	옆    → [            ]
잎    → [            ]	값    → [            ]
(3) 부엌 → [            ]	밖    → [            ]
몫    → [            ]	닭    → [            ]
(4) 콩    → [            ]	점    → [            ]
절    → [            ]	산    → [            ]

2. 다음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써 보세요.

(1) 웃어른 → [            ]	팔알    → [            ]
웃웃    → [            ]	웃 안    → [            ]
(2) 부엌 안 → [            ]	젓어미 → [            ]
꽃 아래 → [            ]	홀웃    → [            ]



3. 받침에서 소리나는 일곱 자음을 써 보세요.

→ \_\_\_\_\_

4. 다음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 |                         |                     |
|-------------------------|---------------------|
| (1) 국민 → {            } | 입는 → {            } |
| 윗물 → {            }     | 밥물 → {            } |
| (2) 국력 → {            } | 몇 리→ {            } |
| 급류 → {            }     | 남루 → {            } |
| (3) 담력 → {            } | 종로 → {            } |
| 찰나 → {            }     | 난로 → {            } |

5. 다음의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써 보세요.

- |                          |                     |
|--------------------------|---------------------|
| (1) 미달이 → {            } | 같이 → {            } |
| 해돋이 → {            }     | 끝이 → {            } |
| (2) 약국 → {            }  | 먹고 → {            } |
| 앞집 → {            }      | 젓소 → {            } |

6. 다음 단어의 어간에 알맞은 어미는 <보기>의 A, B 중 어느 것인지 말해 보세요.

- |        |    |    |    |    |
|--------|----|----|----|----|
| (1) 막다 | 놀다 | 찾다 | 날다 | 살다 |
| (2) 먹다 | 얼다 | 울다 | 걷다 | 멀다 |

<보기> A : 아, 아서  
          B : 어, 어서

## Ⅱ. 회화 학습

### 1. 회화 연습

(택시를 탈 때)

민 수 : 택시로 갈까요, 버스로 갈까요?

지 연 : 시간이 없으니 택시로 가요.

민 수 : 택시를 금방 잡을 수 있을까요?

지 연 : 마침 저기 빈 차가 오는군요.

        택시! 택시!

운전사 : 어디까지 모실까요?

민 수 : 대학로까지요.

지 연 :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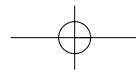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운전사 : 지금 차가 붐비기 때문에 40분쯤 걸릴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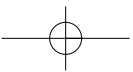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지 연 : 그럼 빨리 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 2. 대치 연습

- |     |     |      |      |      |
|-----|-----|------|------|------|
| (1) | 택시로 | 갈까요? | 버스로  | 갈까요? |
|     | 걸어서 |      | 지하철로 |      |
|     | 전철로 |      | 택시로  |      |

- |     |     |     |     |     |
|-----|-----|-----|-----|-----|
| (2) | 시간이 | 없으니 | 택시로 | 가요. |
|     | 돈이  |     | 걸어서 |     |
|     | 택시가 |     | 버스로 |     |





(3)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돈이		들까요?	
	힘이		셀까요?	
(4)	차가 붐비기	때문에	50분쯤	걸립니다.
	도로가 복잡하기		한 시간쯤	
	차가 밀리기		두 시간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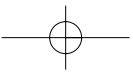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4. 문답 연습

- 택시로 갈까요, 버스로 갈까요?  
— 지하철이 빠르니 지하철로 가요.
- 지하철은 어느 역에서 타요?  
— 충무로 역에서 타요.
- 지금 가면 늦지 않을까요?  
— 택시로 가면 늦지 않을 거예요.

Ⅲ. 연습 문제

※ 다음 밑줄 친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써 보세요.

- (1) 비가 와서 옷옷이 모두 젖었다.  
[     ]     [     ]
- (2) 그는 앞길까지 굳이 따라나섰다.  
[     ]     [     ]



## 1. 놀란 토끼와 사자

강 기슭    the edge of a river

우거지다    to grow thicker

깜짝 놀라다    to be surprised

달아나다 to run away

헐떡거리다 to pant

큰일나다      when a big problem  
                 arises

늑대 wolf

여우 fox

사슴 deer

노루      roe deer

곰 bear

기린 giraffe

코끼리 elephant

호랑이 tiger

텅달아 to follow suit

사자 lion

뛰어가다    to run

묻다 to ask

강(물) river

퐁딩 with a splash

벌벌 떨다 to tremble all over

살금살금 quietly

마침 just then

경솔하다    to be careless

남(들)      other people

죽대 moral principle

수없이 countlessly

분별없는 reckless

땅값 price of land

터무니없이 groundlessly

값이 뛰다    prices shoot up

의과 대학    medical school

몰려가다 flock toward

컴퓨터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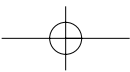
science

적성      aptitude

아랑곳없이 regardless of

여행	trip
----	------

필요성      the necessity



주머니 사정 financial condition

무턱대고 recklessly

## 2. 소개하는 방법

일상 생활 daily life

경우 occasion

종종 sometimes

관계 relation

정확히 exactly

웃어른 elderly neighbors

정중하게 politely

친밀감 intimacy

표시하다 to express

덧붙이다 to add

전학 오다 to come from

무용 dancing

요리 솜씨 cooking skill

으뜸이다 to be excellent

덕분에 to be indebted to

환갑 the 60th birthday anniversary

정정하다 old but vigorous

역사 history

위치 location

규모 scale

특색 distinctive feature

과장 exaggeration

백악관 the White House

담쟁이덩굴 an ivy

뒤덮고 to be covered with

## 3. 아름다움에 대하여

며칠 전에 a few days ago

제과점 bakery

대여섯 five or six

슬프다 to be sad

까닭 reason

대화 conversation

거칠다 to be rough

인품/인격 personality

닦다 to cultivate

큰 몫 important role

차지하다 to play

험악한 rude

거침없이 unsparingly

튀어나오다 to burst out

향기롭다 fragrant

절친하다 to be really close

가지각색 of every kind

모양 shape

구성하다 to form

종합적으로 overall

발견하다 to find

관계 없이 unrelated to

첫인상 first impression

우락부락하다 look wild

만날수록 the more you meet

차차 gradually

생김생김 looks

일찍이 in early days

비관 depression

통해서 through

형언할 수 없다 to be beyond words

훨씬 much more

패배하다 to fail

원망하다 to blame

훌륭한 삶 great life

외양 appearance

깊이 deeply

고민하다 to be in agony

위로가 되다 to be solaced

수양으로써 by self-improvement

다듬다 to cultivate

영원히 forever

고치다 to fix

별 탈 없이 without any trouble

태연자약하다 to be undisturbed

여유를 지니다 to be very composed;  
calm

관상가 physiognomist; a reader of  
faces

심상 mind

결정하다 to decide

## 4. 한국어 사전 찾기

제대로 properly

이해하다 to understand

어휘력 word power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while one is  
unconscious of

즉석에서 at o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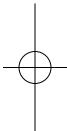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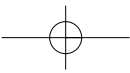
사전적 의미 the meaning in the  
dictionary

파악하다 to get the grasp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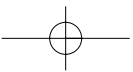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확인하다 to confirm

쓰임새 usage

활용하다 to use







익히다 to learn  
자모 순서 the order of the Korean  
alphabet  
어깨 shoulders  
표준말 standard language  
사투리 dialect  
신다 to record  
사전에 in the dictionary  
억새 a eulalia  
겨우 barely  
아주 very  
기본형 basic form of a verb  
형태소 a morpheme

5. 두 편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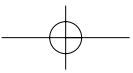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운율 rhythm  
압축하다 to compress  
주제(중심 생각) theme  
비유 simile  
상징 symbol  
음미하다 to appreciate  
한 폭의 그림 a picture  
잠 이루지 못하는 밤 a sleepless  
night

마늘 밭 garlic field  
추녀(처마) the eaves  
발목 ankle  
마당귀 edge of the yard  
역겹다 fo feel disgusted  
고이(곶개) pretty  
진달래꽃 azalea  
아름 따다 to pick an armful  
한아름 armful  
따다 to pluck  
뿌리다 to sprinkle; to shower  
사뿐히 softly  
즈러 밟다 stepping (on flowers)  
carefully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I'll  
never cry even if I die.

6. 제주도 여행

비단 ~뿐만 아니라 not only ~  
but also  
견문 experience  
넓혀 주다 widen one's knowledge  
활력소 a t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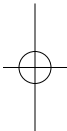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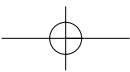
기억이 희미하다 memory becomes  
faint  
감동 impression  
틈틈이 at one's leisure  
기록하다 to record  
생생한 vivid  
의미 있는 meaningful  
기행문 travel sketches  
엇갈리다 to alternate  
비가 질금거리다 to rain on and  
off  
헤치다 disperse when sun shines  
through the clouds  
한나절 half a day  
천지 the pond on the Paekdu  
Mt.  
걷다 to walk  
공중에서 in the sky  
퍼덕거리다 to flutter (wings)  
전신주 an electric pole  
지붕 a roof  
순하다 to be mild  
짐승 beast  
야생 wild  
성질/성미 character

성질이 사납다 to be fierce;  
ferocious  
암소 a cow  
황소 a bull  
반항 resistance  
순종 obedience  
고삐 a halter  
매다 to hold (the reins)  
사료 fodder  
주다 to fodder a horse  
풍경 scenery  
말 horse  
방목하다 to pasture  
굴레 a bridle  
조랑말 a pony  
밀짚 모자 straw hat  
안장 a saddle

7. 한국의 속담

낯 놓고 기억(ㄱ)자도 모른다 can't  
see what is in front of you  
eyes  
교훈 lesson  
속담 prove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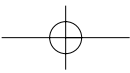


능숙하게 skillfully  
의사 doctor  
곤잘 often  
최선 the best  
공든 탑 an elaborated tower  
적절한 표현 adequate expression  
자랑하다 to be proud of  
뽐내다 to boast  
조언 suggestion  
벼 rice plant  
이삭 an ear (of grain)  
알이 (여물어) 익다 to ripen  
grains of rice  
교만하다 to be haughty  
겸손하다 to be humble  
조상 ancestors  
인용하다 to quote  
구사하다 to speak fluently  
한 술 밥에 배부르랴? Does a  
spoonful of rice make you full?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Everybody makes mistakes.  
재주 skill  
굴뚝 chimney  
연기 smoke

원인 cause  
결과 result  
죽 gruel  
떡 rice cake  
별 따기 plucking a star out of  
heaven  
대보다 You can't tell which is  
longer unless you measure them  
both.  
퇴근하다 to leave work  
경보 장치 an alarm system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Don't cry  
over spilt milk.  
우물 안 개구리 to have a narrow  
outlook

8. 나의 일기

장비 equipment  
주말 weekend  
살림꾼들 frugal housewives  
떨리다 to be nervous  
직접 부딪쳐서 해 보다 to face  
and do something by yourself  
요령이 생기다 to get the kn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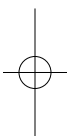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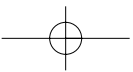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of something  
거뜰히 without any trouble  
혼자 일을 해내다 to complete the  
task by oneself  
제법 능숙해지다 to be quite  
accustomed to  
증거가 아닐지 might be evident  
that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 to pass  
time meaninglessly  
적어도 at least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to be able  
to solve a problem by oneself  
조금씩 little by little  
보태 쓸 생각이다 intend to use it  
in addition to something else

9. 문장의 끝맺음과 높임

끝맺음 the end of (a sentence)  
구분되다 to be divided  
하라 do it [informal]  
하십시오 do it [formal]  
높임말 an honorific term  
낮춤말 a plain term

여쭙다 to ask [formal] polite  
드리다 to give [formal] polite  
존경 respect  
익히다(배우다) to learn  
좌우되다 to be swayed by  
종류/가지 kinds  
나누다 to divide  
평서문 a declarative sentence  
설명 an explanation  
의문문 an interrogative sentence  
질문 question  
명령문 an imperative sentence  
요구 a request  
청유문 a propositive sentence  
요청하다 to request  
감탄문 an exclamatory sentence  
느낌 feeling  
놀람 surprise  
일기(장) diary  
깨우다 to awaken  
좀 일찍 깨워 주세요 Please wake  
me up early.  
어색하다 to be awkward  
어딘지 somewhere  
예사말 a common 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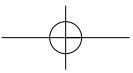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문장	sentence	수화기	receiver of the telephone
주체	the chief subject	수업료	tuition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	the stem of a declinable word	방바닥	floor
어휘/단어/낱말	vocabulary	쓸데없는	useless
특별한	special	피서	summerng
서술 형태	predicative sentence	심심하다	bored
생신	birthday [formal] polite	빚나가다	going off the track
진지	rice [formal] polite	갈팡질팡하다	confusingly
말씀	talk [formal] polite	의논하다	to discuss
잡수시다	to eat [formal] polite	다루듯	treating
연세	age [formal] polite	비밀	secret
숨결(자취)	breathing	초대하다	to invite
문화재	cultural assets	창피하다	to be ashamed of
그래요?	Really?	사귀다	to befriend
		손뼉을 치다	to clap

10. 은정이네 저녁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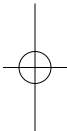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바람직한	desirable
학생회	student association
학부모회	parent association
통화중	the line is busy
멋쟁이	fashionable
시시하게	not exciting
급히	in a hu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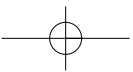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11. 실용문

연결짓다	to link; to connect
독자	a reader
필자	a writer
목적	purpose
사물	things
현상	phenomena
호응	response



내용	contents	형식	format
조직	structure	후렴	refrain
제시 방법	method of presentation	전파 속도	speed of circulation
네 편	four pieces	세련미	refined beauty
실용문	practical writings	소박하다	to be naive
육하 원칙	the basic W's and H (who; what; when; where; why; how)	향토적인	countrylike
과장하다	to exaggerate	직업적	professional
사용법	directions	일반적으로	generally
유의점	caution message	수필	essay
간단 명료하게	briefly	애정	affection
현명하게	wisely	토박이 말	native tongue
유의하다	to be attentive to	어원	the origin
민요	folk songs	따지다	trace a word to its origin
민중	people	신나다	to be excited
전승	to be handed down	억지로	with force
집단적	as a group	안내문	information
종사하다	to be engaged in	통장	bankbook
노동	labor	도장	stamp; seal
제례	religious ceremonies	비밀 번호	PIN
부르다	to sing	기재하다	to record
반영하다	to reflect	분실하다	to lose
국민성	the people's sentiment	외국인 근로자 축제	한마당 festival
가사	words of a song		for foreign laborers
		향수	homesickness
		달래다	appease





다지다 to promote  
민속 공예단 folk art trou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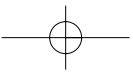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12. 성공과 실패

성공 success  
실패 failure  
박수 applause  
비난의 대상 those who have done  
wrong will likely be accused  
역사상 in history  
위대하여 because of greatness  
칭찬 praise  
마련이다 to be sure  
생전 life before death  
일생 one's whole life  
불쌍한 pitiful  
고아 orphan  
고아원 orphanage  
불행하다 to be unhappy  
뛰어나다 to be excellent  
명심하다 to bear in mind  
실망하다 to be disappointed  
전혀 not at all  
평범한 common

약자 a weak person  
사정 circumstances  
양지 sunny spot  
음지 the shade  
너그럽다 to be tolerant  
두려워하다 to be afraid of  
노력하다 to try  
보람 worth

13. 좋은 글을 쓰려면

튼튼한 strong  
재료 materials  
필요하다 to need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글감 good theme with suitable  
subject matters  
설계도 plan  
개요 outline  
개요 작성하기 making an outline  
글을 짜다 to plan your writing  
간추리다 to sum up  
나름대로 in its own way  
지키다 to keep  
상담자 counsellor



수호자 guardian  
목사 minister; preacher  
진실한 true  
정확한 accurate  
표현 expression  
짜임새 frame  
비결 secret  
경험 experience  
간접 경험을 쌓다 to gain something  
indirectly  
사고력 thinking ability  
문장력 writing ability  
감명 깊게 deep impression  
생생하게 vividly  
기억하다 to remember  
맑다 to be bright  
순순하다 to be pure  
사랑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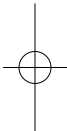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14. 약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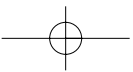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장난을 하다 to play a trick  
티 dust  
무섭다 to be afraid of  
치료하다 to cure

살며시 softly  
어루만지다 to pat  
자장가 lullaby  
중얼거리다 to murmur  
나무 껍질 bark  
숨다 to hide  
병이 들다 get sick  
혹시 by any chance  
머리맡 near the head  
외다/외우다 to recite  
문득 suddenly  
소독약 antiseptic  
미끈한 good looking  
뜨거운 hot  
진한 deep  
정성 care  
새삼스레 anew

15. 말의 영향력

상아 ivory  
수정 crystal  
교양 etiquette  
용도 usage  
서명 signature





수고 effort

덜다 to reduce

역할 role

인사말 greetings

습관화 habitualization

전용 private

용어 vocabulary

냉큼 quickly

우체국 post office

우편물 mail

무게 weight

종류에 따라 according to the type

등기 register

속달 express

항공(우편) airmail

폭넓게 widely

애매한 vague

개성 identity

부족하다 to be lacking

기계화 mechanization

태풍 typhoon

사납다 to be fierce

위력 power

꽤 quite

끈질긴 consistent

공평하게 equally

교대로 alternately

살벌한 warlike

보도 broadcasting

한날 only

부질없이 useless

장난 trick

특히 especially

언뜻 보면 at a glance

주장 insistence

뿌리 roots

놓칠 수 없다 can't miss

결국 finally

손상되다 to ruin

염려하다 to worry

동화책 children's book

주인공 hero; heroine

자연스럽게 naturally

기회 chance

앞에 말한 것처럼 as mentioned

before

예민한 sensitive

무심코 unintentionally

방향 direction

16. 이수진에게

뜻하지 않은 unexpected

전해 듣다 to hear about

지역 area

험하다 to be dangerous

소문 rumor

대담하다 to be bold

놀라다 to be surprised

부디 please

지나친 excessive

청소년 youth

불쾌 지수 discomfort index

담배꽂초 cigarette butt

아무데나 anywhere

함부로 recklessly

가리지 않고/생각하지 않고 without

thinking

마음대로 as you please

정신적 mentally

자유 freedom

민주주의 democracy

잘못 이해하다 to misunderstand

옳다 to be right

강조하다 to stress

책임 responsibility

잊어버리다 to forget

귀하다 valuable

차지하다 to obtain

각자 individually

또한 also

결코 never at all

침범하다 to invade

내게도 to me also

생활 주변 living environment

에워싸다 to encircle

문제 problem

제일 first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선배 senior

금방 at once

17. 한국어의 음운 변동

음운 a phon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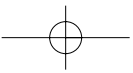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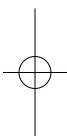
단독으로 independen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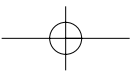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음절 a syllable

음운의 변동 change in phon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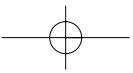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규칙 rule

알아두다 to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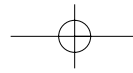




중요하다	to be important	끝소리	the final sound of a
연이어 소리나다	to be pronounced		character
	consecutively	닮다	to resemble
발음 규칙	pronunciation rule	모음 조화	vowel harmony
젓어미	nanny	어간	the stem of a word
겉옷	outerwear	어미	the ending of a word
자음 동화	assimilation of consonants	붙는다	to attach; to follow
국물	broth	된소리	fortis
국력	national strength	무성음	voiceless sound
담력	courage	약국	pharmacy
찰나	a moment	밥상	small dining table used in
난로	a stove		Korea







● 듣기 훈련을 위한 자료 ●

이 책의 1과부터 17과까지의 본문에 관련이 있는 듣기 훈련 자료를 여기에 제공합니다.

다음 몇 가지 듣기 훈련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청취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 ① 교사나 학생이 직접 읽어 준다.
- ② 미리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여 듣는다.
- ③ 미리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여 시청한다.

## 제 1 과 놀란 토끼와 사자

어떤 할머니가 다리를 건너다가 가지고 가던 보파리를 떨어뜨렸다. 그 보파리가 ‘침벙’ 물 속으로 들어갔다. 옆을 지나가던 진희가 놀라서 돈주머니를 놓쳤다. 그 돈주머니가 ‘퐁당’ 물 속으로 떨어졌다. 진희가 돈주머니를 잡으려고 하다가 ‘퐁덩’ 물 속으로 떨어졌다.

[문제 1] 소리를 표시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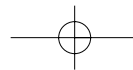
- (1) 침병                      (2) 풍당                      (3) 펄펄                      (4) 풍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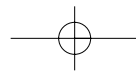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문제 2] 앞의 이야기에 나온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문제 3] 물 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나 물건을 말해 보세요.

- (1) 진희                      (2) 진희의 돈주머니  
(3) 할머니                (4) 할머니의 보따리





## 제 2 과 소개하는 방법

소개할 때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소개해야 한다. 그래서 내 친구 정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제 친구 정미예요.”라고 말씀드렸다. 그 다음에 “정미야,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려.”라고 소개하는 말을 하였다.

[문제 1] 나와 정미는 어떤 사이입니까?

- (1) 친척                      (2) 이웃                      (3) 형제                      (4) 친구

[문제 2] 나는 왜 정미를 먼저 소개했습니까?

- (1) 정미는 내 친구니까  
(2) 정미를 먼저 봤으니까  
(3) 정미가 원했으니까  
(4) 정미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학교를 소개할 때에는 학교의 역사, 위치, 규모, 특색, 학생들의 생활, 학교에서 느끼던 점 등을 사실대로 과장되지 않게 소개한다.

[문제 3] 학교를 소개할 때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1) 학교의 위치를 정확히 말한다.  
(2) 학교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말한다.  
(3) 학교의 특색을 사실대로 말한다.  
(4) 학교에 대한 느낌을 과장해서 말한다.

## 제 3 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일상 용어를 거칠게 쓰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골라 쓰도록 해야겠다.

[문제 1] 무엇을 아름답게 써야 할까요?

\_\_\_\_\_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둥글고, 길고, 크고, 작고, 하얗고, 누렇다. 하나도 똑같은 얼굴이 없고 각양각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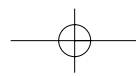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문제 2]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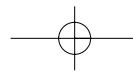
- (1) 예쁜 얼굴이 최고다.  
(2) 얼굴은 가지각색이다.  
(3) 하얀 얼굴이 최고다.

얼굴 모양만 예쁘고 마음씨가 곱지 못하면 진정한 미인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을 닦아서 곱게 가꾸는 동안에 차츰차츰 얼굴 표정까지 아름답게 된다.

[문제 3] 마음이 고우면 무엇까지 아름답게 됩니까?

- (1) 얼굴 모양    (2) 얼굴 표정  
(3) 얼굴 크기    (4) 얼굴 색깔





## 제 4 과 한국어 사전 찾기

영수 : 어머니, ‘요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엄마 : 어디에 나오는 말인데?

영수 : 여기에 ‘단어는 글의 기본 요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 : 사전을 찾아보아라.

[문제 1] 엄마는 영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 (1) 아빠에게 물어 보라고                      (2) 컴퓨터를 끄라고  
(3) 사전을 찾아보라고                      (4) 불을 끄고 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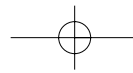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책을 많이 읽을 것, 모르는 단어를 족석에서 사전으로 찾는 습관을 기를 것, 새로 익힌 단어를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 2]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지 않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책을 많이 읽는다.
- (2) 사전을 찾는 습관을 기른다.
- (3) 새로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 (4) 사전 찾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는 첫째, 가나나(ㄱ 나)의 자음 순서로 찾는다. 둘째, 한글(한글)의 자음 순서로 찾는다. 셋째, 받침으로 쓰인 자음은 순서대로 찾는다.

(문제 3) 다음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황소                      (2) 다람쥐                      (3) 개                      (4) 사슴

## 제 5 과 두 편의 시

시는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유나 상징하는 단어를 써서 나타낸 글이다. 그래서 시를 읽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마치 노래를 듣거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문제 1] 시에는 어떤 말들이 쓰입니까?

- (1)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
- (2) 시인의 생각을 상징하는 말
- (3)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말
- (4)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말

박용래 씨의 시 ‘겨울 밤’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 집 마늘 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 집 추녀 밑에 달빛은 쌓이리.

[문제 2] 이 시에서 시인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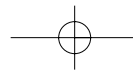
- (1) 마늘 밭      (2) 달빛      (3) 추녀 밑      (4) 고향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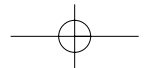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문제 3] 지금 읽은 위의 시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1) 개나리꽃      (2) 무궁화꽃      (3) 진달래꽃      (4) 해바리꽃

## 제 6 과 제주도 여행

나의 가족은 지난 여름에 캐나다를 여행하였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틈틈이 기록해 두었고, 사진도 찍었다. 집에 돌아와서 여행하면서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썼다.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도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문제 1] 이 학생은 어떤 글을 썼습니까?

- (1) 일기      (2) 안내문      (3) 광고문      (4) 기행문

철이가 제주도 여행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친구가 쓴 기행문을 읽고 제주도의 특색인 바람, 말, 소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 바람을 이길 수 없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과연 제주도의 바람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제 2] 제주도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 (1) 바람, 꽃, 말      (2) 말, 소, 바람  
(3) 소, 말, 양      (4) 바람, 비, 말

[문제 3] 철이가 제주도를 여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 편지를 읽고      (2) 역사책을 읽고  
(3) 신문 광고를 읽고      (4) 친구가 쓴 기행문을 읽고

## 제 7 과 한국의 속담

몇 마디 안 되지만, 그 속에 한국 조상들의 깊은 생각, 지혜, 그리고 정서가 담긴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속담이다.

[문제 1] 한국 조상들의 깊은 생각이나 지혜, 정서를 알 수 있는 짧은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1) 일기      (2) 속담      (3) 수필      (4) 동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평소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도 실수를 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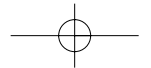
[문제 2] 이 말에 잘 어울리는 속담은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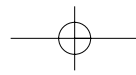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1)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날까?  
(2) 누워서 떡 먹기  
(3)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4)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민 희 : 할머니, 우리 반에 한 학생이 뉴저지에서 전학을 왔어요.

할머니 : 그래. 새 친구가 생겼구나!

민 희 : 할머니, 전 그 학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잘 웃지도 않고





꼭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이에요.

할머니 : 민희야, 너는 아직 그 학생을 잘 모르지 않아? 앞으로 잘  
사귀어 봐라.

[문제 3] 할머니 말씀에 맞는 속담은 어느 것입니까?

- (1)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거야.
- (2) 하늘의 별 따기
- (3)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4)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제 8 과 나의 일기

영민 : 너는 아직 청과 상점에서 캐셔를 보고 있니?

선미 : 아니, 2주일 전에 그만 두었어.

영민 : 왜? 용돈을 많이 번다고 좋아했잖아.

선미 : 그래, 사실이야. 용돈은 좀 벌었지. 하지만, 학교 성적이 많  
이 떨어졌어. 다음 번 과학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지 못하  
면 난 F학점을 받게 돼.

영민 : 그랬구나! 잘 되길 빈다.

[문제 1] 선미는 언제 일하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까?

- (1) 1주일 전
- (2) 2주일 전
- (3) 3주일 전
- (4) 4주일 전

[문제 2] 선미는 무슨 과목의 시험을 잘 봐야 합니까?

- (1) 수학
- (2) 사회
- (3) 과학
- (4) 국어

[문제 3] 선미는 왜 하던 일을 그만 두었습니까?

- (1) 돈을 많이 벌어서
- (2) 일을 하다가 다쳐서
- (3) 일을 하다가 병이 나서
- (4) 일을 하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 제 9 과 문장의 끝맺음과 높임

한국어는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끝말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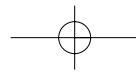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 1. 한국어를 배운다.
- 2. 한국어를 배우느냐?
- 3. 한국어를 배워라.
- 4. 한국어를 배우자.
- 5. 한국어를 배우는구나!

[문제 1] 방금 들은 말 중에서 명령하는 말의 끝말을 써 보세요.

한국어를 \_\_\_\_\_

[문제 2] 방금 들은 말 중에서 물어 보는 말의 끝말을 써 보세요.

\_\_\_\_\_



한국말에는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다. 웃어른께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는 높임말을 써야 한다. ‘우리 엄마는 영어를 배운다.’보다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영어를 배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문제 3] 높임말에 해당하지 않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 (1) 배우신다      (2) 웃어른께      (3) 배운다      (4) 어머니께서는

## 제 10 과 은정이네 저녁 시간

은 정 : 엄마, 나도 여행을 보내 주세요. 제 친구들은 벌써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어머니 : 은정아, 넌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았어. 혼자 어떻게 여행을 하니?  
은 정 : 왜 혼자예요? 친구들과 함께인데…….  
어머니 : 내년까지 기다려라. 가족이 함께 유럽에 가자.

[문제 1] 은정의 친구들은 어디로 여행을 떠났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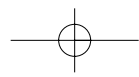
- (1) 미국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문제 2] 은정이는 몇 살입니까?

\_\_\_\_\_

[문제 3] 은정이 어머니는 여행을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 (1) 열여덟 살이 되어 대학에 갈 때까지



- (2)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내년까지  
(3) 어른이 되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때까지  
(4) 은정 자신이 여행 경비를 마련할 때까지

## 제 11 과 실용문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목적이나 의도를 알아야 한다. 글은 쓴 목적에 따라 기사, 광고문, 안내문 등이 있다.  
연필이나 공책을 싸게 사려면 광고문을 읽고, 새로 산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안내문을 읽어야 한다. 세계 뉴스를 알려면 신문 기사를 읽어야 한다.

[문제 1] 세계 뉴스를 알려면 어떤 글을 읽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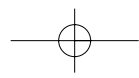
- (1) 편지      (2) 일기      (3) 광고문      (4) 신문 기사

[문제 2] 컴퓨터를 새로 산 뒤에 사용법을 알려면 어떤 글을 읽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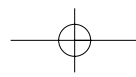
- (1) 기행문      (2) 신문 기사      (3) 안내문      (4) 편지

[문제 3]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 (1) 글쓴이의 직업      (2) 글쓴이의 목적이나 의도  
(3) 글쓴이의 가정      (4) 글쓴이의 취미나 특기







## 제 12 과 성공과 실패

실패를 여러 번 해 본 재현이는 그만큼 강해졌다. 왜냐 하면, 재현이는 실패를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재현이는 야구 공이 날아올 때 공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냈다.

[문제 1] 야구 경기에서 재현이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 (1) 야구 공을 받다가 떨어뜨렸다.
- (2) 실패를 겁내어 도중에 그만두었다.
- (3) 공이 날아올 때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다.
- (4) 빨리 달리지 않아서 야구 공을 잡지 못했다.

주연 : 나는 과학 시험에 실패했어. 겨우 70 점이야.

은주 : 그 동안 복습을 잘 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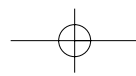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주연 : 복습은 잘 했어. 그런데 시험 전날, 내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어. 거기 갔다가 늦게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은주 : 그렇다면, 네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구나.

[문제 2] 주연이는 왜 과학 시험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 (1) 시험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 (2)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 (3) 은주가 생일 파티를 했기 때문에
- (4) 주연이는 과학을 싫어하기 때문에

청소녀이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문제 3] 성공의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 제 13 과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일 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 처음에는 독후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

[문제 1]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나는 매주 무엇을 합니까?

- (1)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얘기한다.
- (2)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다.
- (3)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
- (4) 책을 읽고 연극으로 꾸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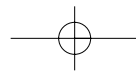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의 제목을 정하고, 형식을 짜고, 각 단락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다.

[문제 2] 개요 작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제목 정하기
- (2) 녹음기를 준비하기
- (3) 형식 짜기
- (4) 각 단락의 내용 정하기

선생님 : 좋은 글을 쓰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학생 1 : 책을 많이 읽어요.



학생 2 :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써요.

학생 3 : 그러면 사고력과 문장력이 향상돼요.

[문제 3] 학생들이 말한, 좋은 글을 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 (1) 남의 글을 보고 그대로 쓰기
- (2)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기
- (3)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 (4) 책을 많이 읽고 계속하여 쓰기

## 제 14 과 약손

우리 오빠는 손재주가 있다. 특히 고장난 기계를 잘 고친다.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 컴퓨터, 청소기 같은 기계가 고장이 나도 걱정이 없다. 우리 오빠가 척척 고치기 때문이다. 내가 오빠 손은 ‘약손’이라고 말하였더니, 아버지께서 ‘편리한 손’이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다.

[문제 1] 고장이 난 물건 중에서 오빠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_\_\_\_\_

[문제 2] ‘약손’이란 말은 원래는 어떤 때 쓰입니까?

- (1)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
- (2) 손으로 만져 주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때
- (3)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을 때
- (4) 손이 예쁘고 재주가 있을 때

[문제 3] ‘편리한 손’은 어떤 손입니까?

- (1) 아플 때 만져서 낫게 하는 손
- (2) 노는 학생을 어루만져서 공부하게 만드는 손
- (3) 미운 얼굴을 만져서 예쁘게 하는 손
- (4) 고장이 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손

## 제 15 과 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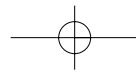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한국어는 ‘그녀’ 혹은 ‘그’라는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어는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어를 쓴다. ‘He’나 ‘She’는 자주 쓰이는 주어이다. 어떤 여성들은 ‘he’를 전부 ‘she’로 바꾸어 쓰고 싶어한다. 그녀들은 그것을 남녀가 평등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문제 1] 한국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1) 주어를 반드시 써야 한다.
- (2)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다.
- (3) 주어와 동사만 있다.
- (4) 주어가 전혀 없다.

[문제 2] 어떤 여성들은 ‘he’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어합니까?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_\_\_\_\_



진정한 의미가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다 먹고 난 음료수 병과 같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문제 3] 사람들은 왜 쓸모 없는 말을 반복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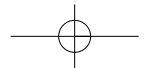
- (1)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 (2) 돈이 많기 때문에
- (3) 많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 (4) 재미있기 때문에

## 제 16 과 이수진에게

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뉴욕은 요즈음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들었는데 늘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빨리 트레이닝을 끝내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지만, 일 주일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뵈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8월 9일  
아들 준영 올림

[문제 1] 이와 같은 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 (1) 일기
- (2) 수필
- (3) 편지
- (4) 소설



[문제 2] 누가 누구에게 보낸 글입니까?

- (1)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 (2) 어머니가 아들에게
- (3) 아들이 부모님께
- (4) 부모님이 아들에게

요즈음 청소년들은 자유만을 부르짖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청소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들의 할 일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문제 3] 청소년들은 자유에 따르는 무엇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 (1) 의무
- (2) 주인공
- (3) 21세기
- (4) 책임

## 제 17 과 음운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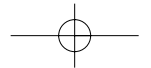
음절의 끝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뿐이다.  
그 예로는, ‘부엌’, ‘꽃잎’, ‘밤낮’ 등을 들 수 있다.  
(역) (잎) (날)

[문제 1] 음절의 끝소리로 나는 자음은 모두 몇입니까?

- (1) 3
- (2) 5
- (3) 7
- (4) 9

[문제 2] 예로 든 단어는 어느 것입니까?

- (1) 음절
- (2) 끝소리
- (3) 꽃잎
- (4) 있다



한국어에는 자음 동화가 있다.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과 다음 음절의 첫 자음이 만나,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발음하는 음운 현상이다.

[문제 3] 자음 동화는 왜 생기는지 말해 보세요.

연구·심의진	김선익 (국제교육진흥원) 김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명완 (고려대학교) 박영목 (홍익대학교) 신난수 (서울 신서중학교) 한연수 (국제교육진흥원) 허만길 (서울 강신중학교) 허천행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홍석화 (국제교육진흥원)
개편진	김순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학교연합회) 손혜숙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부 한국학교) 이영태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부 한국학교) 함혜란 (미국 로드아일랜드) 허병렬 (미국 동부 뉴욕 한국학교)
번역진	김정혜 (미국 로스앤젤레스 벨리 한국학교) 이광자 (미국 워싱턴 통합학교) 이두철 (상명대학교)
삽화진	김요셉 (미국 주 뉴욕 중앙일보) 이대일 (명지대학교) 이중엽 (재미 화가) 최경식 (서울 중평중학교)

재외동포용 고급 (영어권) 한국어 1 (상)

1997년 12월 1일 초판 발행  
2006년 12월 30일 발 행

저작권자 대 한 민 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국 제 교 육 진 흥 원  
인 쇄 인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